

1993  
5  
말일성도  
성도의 빛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표지 설명:**

1829년에 신권이 회복된 이래, 신권의 고귀한 길을 행진하는 성인 남자와 청년의 군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오직 의의 원리로써만",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20쪽 참조.  
(표지 사진 촬영: 엘트 케이 란쇼른, 뒷표지 요셉과 올리버를 성임하는 베드로, 아고보, 요한, 미네르바 티카트 작품.)

**어린이란 표지 설명:**

60쪽 "친구 사귀기"에 나오는 포르투갈 파디의 알렉산드라 마리나 페레이라 칼라도 (줄리 와델 촬영)

## 일 반

대관장단 메시지 : 절망의 새벽-환희의 아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2

기적에 대한 판단 기준 로이스 램 리더 .....8

내가 받은 최고의 생일 선물 다카미 이와사키 마스꼬 .....13

오직 의의 원리로써만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20

주차장에서 드린 기도 .....24

로렌조 스노우 : 한 젊은이의 결정 아서 알 바세트 .....26

따스한 손길과 마음으로 마조리 드래퍼 콘더 .....34

태국의 성도들 데이비드 미첼 .....40

## 청 소 년 란

쌍둥이가 지은 집 리차드 엠 롬니 .....10

주연 배우 다이안 호프만 .....16

달리지 않는 챔피언, 데이비 수잔 이 터너 .....18

물론 메시지 :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임 .....33

현실처럼 다가왔다 모건 디 웨스터먼 .....46

## 정 기 특 별 기 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 .....25

교회 및 지역 소식 .....65

## 어 린 이 란

물론경 이야기 : 암몬, 위대한 종 .....50, 62

셀리의 재능 데브라 해드필드 .....52

심심풀이 .....55

함께 나누는 시간 : 성전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56

친구가 친구에게 :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장로 .....58

친구가 사귀기 : 포르투갈 파디의 알렉산드라 마리나 페레이라 칼라도  
줄리 와델 .....60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원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페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날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웨 러셀 벨리드, 조셀 비 위스리, 리차드 시 스코트

고문: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제326호, 제30권, 제5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3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한 상 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 현 수

© 199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1. 번역 승인-10/91.

May 1993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3985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ies.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자매님에게서 힘을 얻음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내용이 실린 1992년 3월호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발간하신 여러분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사랑을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자매님들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자매애에 관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일성도들은 모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리아호나는 우리가 서로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냐 베오린

베네주엘라 산펠리페

산펠리페 제1와드

함께 나는 축복

저희 스테이크 부장님은 영감받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스테이크의 회원들에게 만일 우리의 모든 가정, 특히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의 가정에 복음이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원한다면,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님은 모든 가족이 리아호나를 구독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활동적인 가족들은 리아호나를 구독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이 도와야 할 가족을 찾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 가족들은 각자 활동이 저조한 가족을 찾아 선물로 리아호나를 정기 구독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몇몇 와드에서는 가족들이 100퍼센트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얻은 훌륭한 결과의 하나는 리아호나를 통해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이 재활동화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

니다. 또한 모임도 점점 더 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모두 영에 좀더 민감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간증을 키워주는 잡지에 감사드립니다.

윌리엄 림벨라

페루 리마

페루 리마 중앙 스테이크

가정과 가까이 함

탐볼리(영어) 1992년 3월호에 실린 크리스탄타 후안 자매에 관한 이야기는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같은 필리핀 자매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후안 자매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물질적인 편의를 포기하는 것을 통해 용기와 모범적인 신앙과 간증을 보여 주었습니다. 필리핀의 모든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교회 내에 후안 자매와 같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안 자매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시엘리토 마리아 오수모

편집자 주

애독자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편지와 기사 및 이야기 등을 기다립니다. 언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명과 주소, 와드/지부 및 스테이크/지방부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담당자 앞







# 절망의 새벽 — 환희의 아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영**국의 런던은 역사로 가득 차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도 트라팔가 광장이나 버킹검 궁전, 영국 국회 의사당의 시계탑, 웨스트민스터 사원 혹은 테임즈 강에 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 문화의 도시에는 이러한 명소들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그 가치를 논할 수 없는 매우 웅장한 화랑이 여러 개 있습니다.

날씨가 잔뜩 찌푸린 어느 겨울날 오후에 저는 그 유명한 영국 국립 미술관을 찾아, 그곳에서 케인즈버러의 풍경화와 램브란트의 초상화 및 폭풍우를 몰고 오는 구름을 그린 콘스터블의 그림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3층 한 구석에 걸려 있는 걸작 한 점이 제 관심은 물론 마음마저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프랭크 브래리의 작품으로, 바람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초라한 오두막집을 화폭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한 노파의 옆에 젊은 여인이 선원인 남편을 잃고 애통해 하는 모습으로 꿇어 앉아 있었으며, 창가의 다 타버린 양초는 그 여인이 허망하게 밤을 꼬박 새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던 밤이 지나간 후, 남은

한 노파의 옆에 젊은 여인이 선원인 남편을 잃고 애통해 하는 모습으로 꿇어 앉아 있었으며 창가의 다 타버린 양초는 그 여인이 허망하게 밤을 꼬박 새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것이라곤 거대한 먹구름뿐이었습니  
다.

저는 그 여인의 고독한 심정과 절  
망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화가  
가 비극적인 이야기를 묘사한 그의  
작품에 붙인 제목은 지금까지도 제  
머리 속을 떠나지 않고 생생하게 기  
억됩니다. 그 작품에는 절망의 새벽  
이란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젊은 미망인은 얼마나 애타게  
위로받고 싶었겠습니까? 아니 그보  
다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진  
혼가”에 나오는 다음 구절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수부는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사냥꾼은 산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 여인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밝  
아오는 새벽이 곧 절망을 안겨 주는  
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죽음을 종  
말로 생각하고 불사불멸을 한낱 꿈  
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겪는 경험  
입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퀴리 부인은 파  
리의 노상에서 생긴 사고로 사망한  
남편 피에르 퀴리의 장례를 끝내고  
돌아와, 그날 밤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흙으로  
덮고, 그 위에 꽃다발을 놓았다. 모  
든 것이 끝났다. 남편은 땅 속에 문  
혀 마지막 잠을 자고 있다. 모든 것  
이 끝났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무신론자인 버트란드 러셀은 그의  
유서에 “어떠한 정열이나 영웅적인  
자질이나 혹은 고결한 사상과 감정  
도 인간의 생명을 무덤 너머에까지  
연장시켜 주지는 못한다.”라고 했으

며, 또한 독일의 철학자이며 엄세주  
의자인 쇼펜하우어는 이보다 신랄하  
게 “불사불멸을 바라는 것은 곧 업  
청난 실수가 영속되기를 바라는 것  
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이 깊은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삶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일까?’라고 자문해 봅니  
다.

죽음은 온 인류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비틀거리며 걷는 노인에게도  
찾아오고, 인생의 중반에도 미처 미  
치지 못한 사람에게도 소환장을 보  
내는가 하면, 어린 아이의 웃음을  
곧잘 앗아가기도 합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  
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세인의 존경을 받는 온전하며 의  
로운 사람인 욥은 수세기 전에 죽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물  
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  
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  
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  
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욥기 14: 11~12)

그러나 욥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  
럼 이 생각을 바꾸어 걸음으로 드러나  
는 사랑의 승리라는 절망에서 돌아  
서서 다음과 같이 승리의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  
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히 돌에 새겨  
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  
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  
실 것이라

“...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기 19: 23~26)

또한 사도 바울이 외친 다음과 같  
은 분명한 부름을 듣고 영감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  
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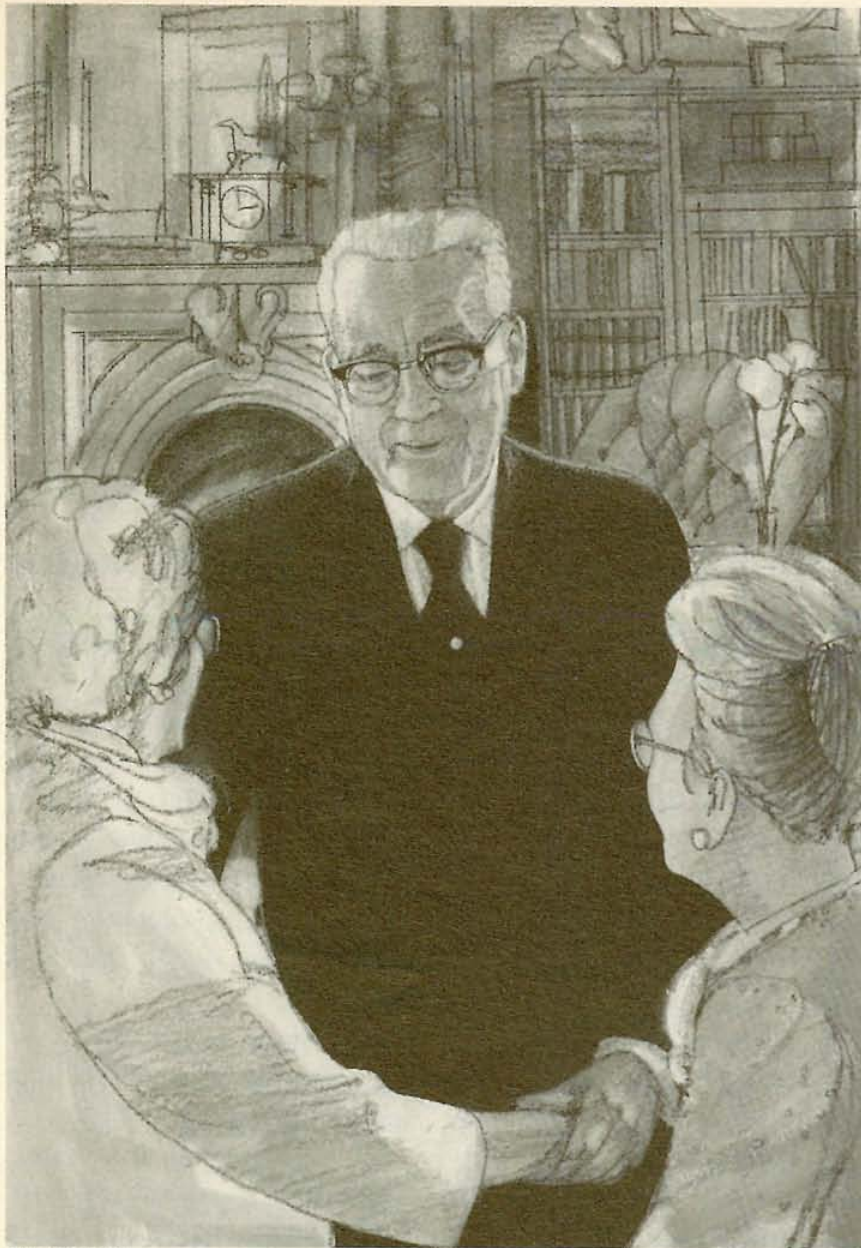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  
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  
38~39)

아마도 경전 구절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다음 편지  
내용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극적인  
방법으로 밝힌 구절은 없을 것입니  
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  
22)

종종 죽음은 침입자처럼 불시에  
찾아와, 인생의 축제가 한창 진행되  
는 황금기에 생의 밝은 빛과 즐거움  
을 앗아가 버리는 적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좌절과 회의를 안  
겨 주기도 합니다. 물론 심한 고통을  
겪거나 중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 마치 자비의  
천사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죽음을 인간의 행복을 앗  
아가는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전에는 비참한 상태  
에 처해 있는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 중 얼른 떠오르는  
여인으로 사르밧의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얼마 안되던  
식량마저 다 떨어져 그 여인은 굶어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 그 과부





래리 윈보그 그림

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언뜻 보기에  
는 심히 지나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여인이 보인 반응은 참으로 가슴  
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  
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  
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  
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  
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  
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  
라”(열왕기상 17:12)

엘리아의 안위하는 말이 여인의  
영혼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  
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  
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  
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아의 말대로 하였  
더니...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  
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3~16절)

헤럴드 비 리 장로는 자매들의  
하소연을 들어 주고 함께 슬픔을  
나눈 뒤, 두 자매에게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던 후, 그 과부의 소중  
한 아들이 죽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여인의 탄원을 들으시고  
주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아들을 살  
려 주셨습니다.

나인의 과부 또한 사르밧의 과부  
와 같았습니다. 그 여인 역시 아들을  
잃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살아나게 되  
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슬  
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  
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겪고  
있는 과부들을 여전히 잊지 않고 계  
십니까?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서 멀지 않  
은 곳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잘생긴 아들을 둘씩 두고 있  
었으며, 각기 사랑하는 남편과 더불  
어 편안히 건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혹한 죽  
음의 신이 이들 자매의 가정을 엄습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아들  
을 하나씩 잃었으며, 그후 남편을 잃  
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했지  
만 슬픔은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상한 마음은 그  
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조  
용히 살 곳을 찾아, 외부 세계와 단  
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뒤 슬픔을  
간직한 채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 자매를 잘 알고 있는 말일의 하나님의 예언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숨어 지내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사무실의 바쁜 일들을 제쳐놓고 외로운 과부들이 살고 있는 옥상에 가설한 주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자매님들의 하소연을 들어 주고 함께 슬픔을 나눈 뒤, 두 자매님에게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각기 성전에서 봉사하기 시작하였으며, 눈을 밖으로 돌려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과부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언자를 통해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환한 진리의 빛으로 죽음의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이 말씀, 곧 죽음을 넘어서 계속되는 삶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확신은 구세주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신 평안이라 함이 좋을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1~3)

어둠과 공포로 둘러싸인 갈보리 언덕에서 어린 양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누가복음 23:46) 이제 어두움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곁을 떠나 오셨다가 하나님 면전으로 되돌아 가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 가는 사람들은 축복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께 의지하는 자녀들을 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빛보다 더 좋고, 이미 알고 있는 길보다 더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순교자 스테반은 하늘을 우리러 보며 부활의 진실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사도행전 7:56)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여 승영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시현을 보았습니다. 후에 바울이라고 불리운 그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또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두려움을 모르는 선교사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

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린도전서 15:3~8)

이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시드니 리그돈과 함께 이같은 간증을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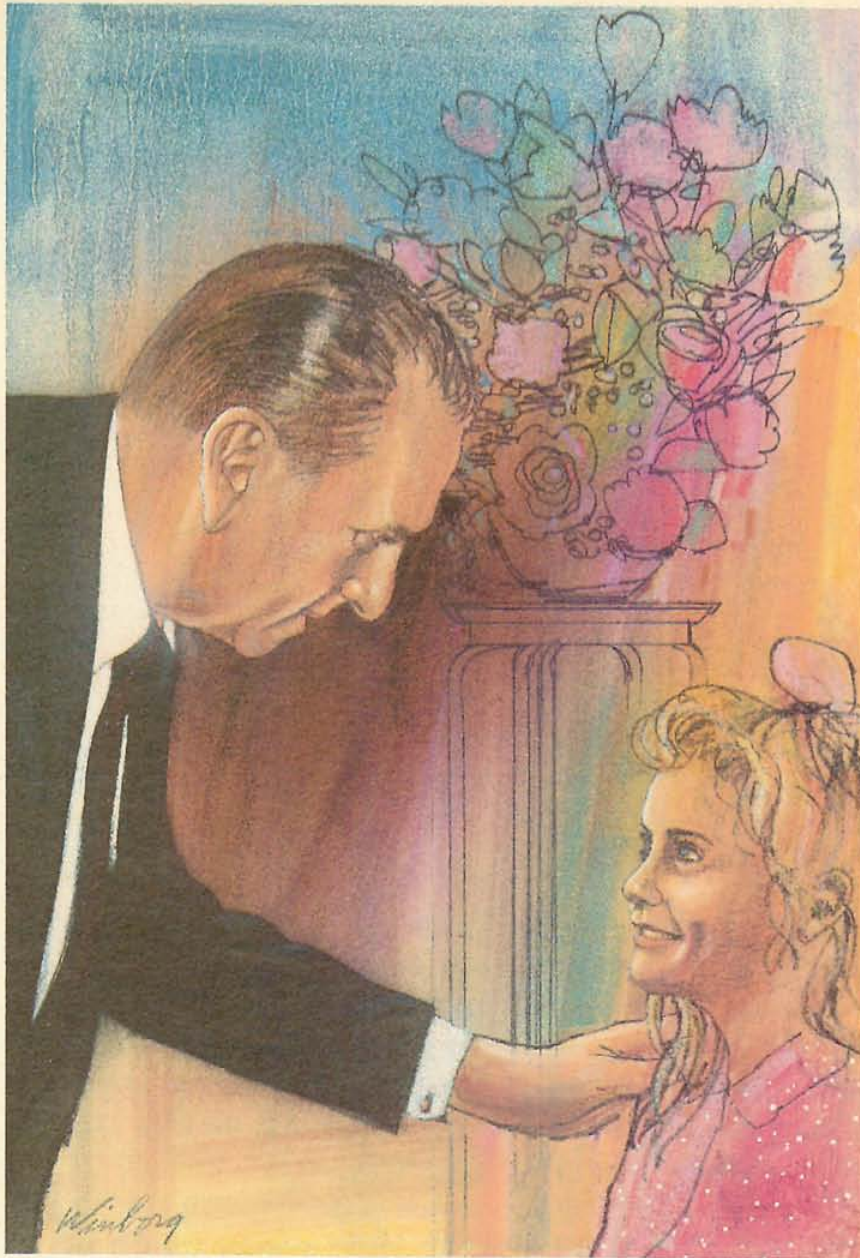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24)

이 지식이야말로 인간에게 힘을 북돋아 주며, 이 진리야말로 위안을 안겨 줍니다. 또한 이 확신이야말로 슬픔에 잠겨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이끌어 내어 빛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은 연로한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또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몇년 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발행





어머니를 여윈 어린 소녀는 제 손을 잡더니, “몬슨 형제님, 저는 울지 않아요. 형제님도 울지 마셔야 해요. 우리 다시 만나 함께 살게 될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다. 조그만 손으로 제 손을 여전히 꼭 움켜쥐고 있던 그 어린 소녀에게는 결코 절망의 새벽이란 없을 것입니다. 삶이 무덤을 넘어서도 계속된다는 사실에 대한 소녀의 확고한 간증에 힘입어, 소녀와 소녀의 아버지와 언니 오빠들은 물론 이 거룩한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 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5)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이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망의 새벽을 꿰뚫어 환희의 아침으로 바뀌게 하는 빛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

되고 있는 여러 신문에 저와 가까이 지내던 한 분의 사망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이분은 한창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영안실을 방문해서 모여 든 많은 조문객들과 함께 허탈감에 빠져 있는 돌아가신 분의 남편과 어머니를 여윈 자녀들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막내인 켈리가 저를 보더니 제 손을 잡고 “이리 오세요.”라고 말하며,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관 앞으로 이끌고 가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몬슨 형제님, 저는 울지 않아요. 형제님도 울지 마셔야 해요. 엄마는 죽음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에 관해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와 아빠의 딸이니까 우리 다시 만나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시편의 저자가 쓴, “어린 아이 ...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어...” (시편 8:2)라는 말이 제 영혼을 울려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신앙심 깊은 아름다운 미소를 보았습니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심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는 때때로 죽음이 자비의 천사로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크나큰 슬픔과 회의를 불러 일으키며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는 적으로 보고 있다.

2.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넘어서도 삶이 계속된다고 여러 번 확인시켜 주셨다. 경전에는 걱정을 화평으로 바꾸며 절망을 확신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온다.



# 기적에 대한 판단 기준

로이스 램 리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악성 뇌종양이란 진단을 받았다. 기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시던 아버지는 그 충격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필요한 신앙을 행사하면 어머니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아주 열심히 기도했으며 어머니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신권 축복을 받으셨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조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매일마다 성전에 다니셨다. 어느날 아침 나는 창가에 서서 아버지가 아침 일찍 성전으로 떠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몇년 전에 남동생이 말에서 떨어졌던 날을 떠올렸다. 단지 타박상을 조금 입었으며 코피만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늦게 동생이 죽었을 때 나는 났을 잃었다. 나는 땅이 꺼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여러 달 동안 왜 하나님 아버지는 기적을 베풀어 내 남동생을 살려 주시지 않으셨는가? 라는 고통스러운 생각이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남동생이 죽은 지 몇년이 지난 뒤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첫번째 뇌종양을 제거하고 사실 수 있는 기적을 누렸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창문에서 돌아서면서 나는 기적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누가 그러한 것들에 기적이란 이름을 붙였을까? 기적은 정말 신앙으로 말미암아서만 주어지는 것일까?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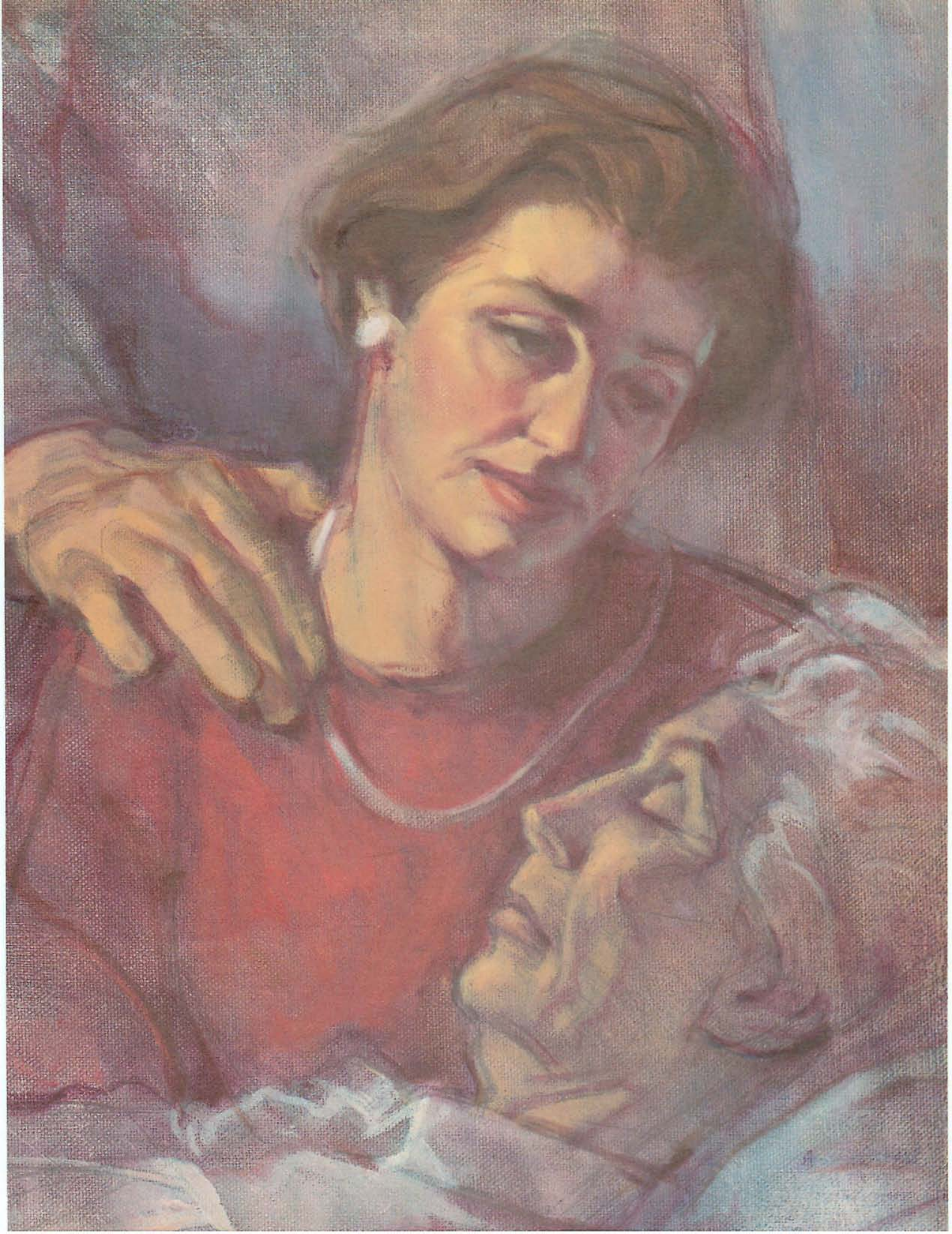
람들은 어떻게 기적이라고 정확히 판단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나는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지금 어머니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 같다. 첫번째 뇌종양을 제거한 지 약 35년 만에 두번째 뇌종양으로 삶의 불이 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 오셨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마련된 또 다른 축복이 가능할지 의문스러웠다.

결국 어머니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맞대고 나는 사랑한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임종시에 보여 준 평화로운 표정으로 나는 그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증거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복음이 참되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다시 웃고 계시며 이전에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났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셨다는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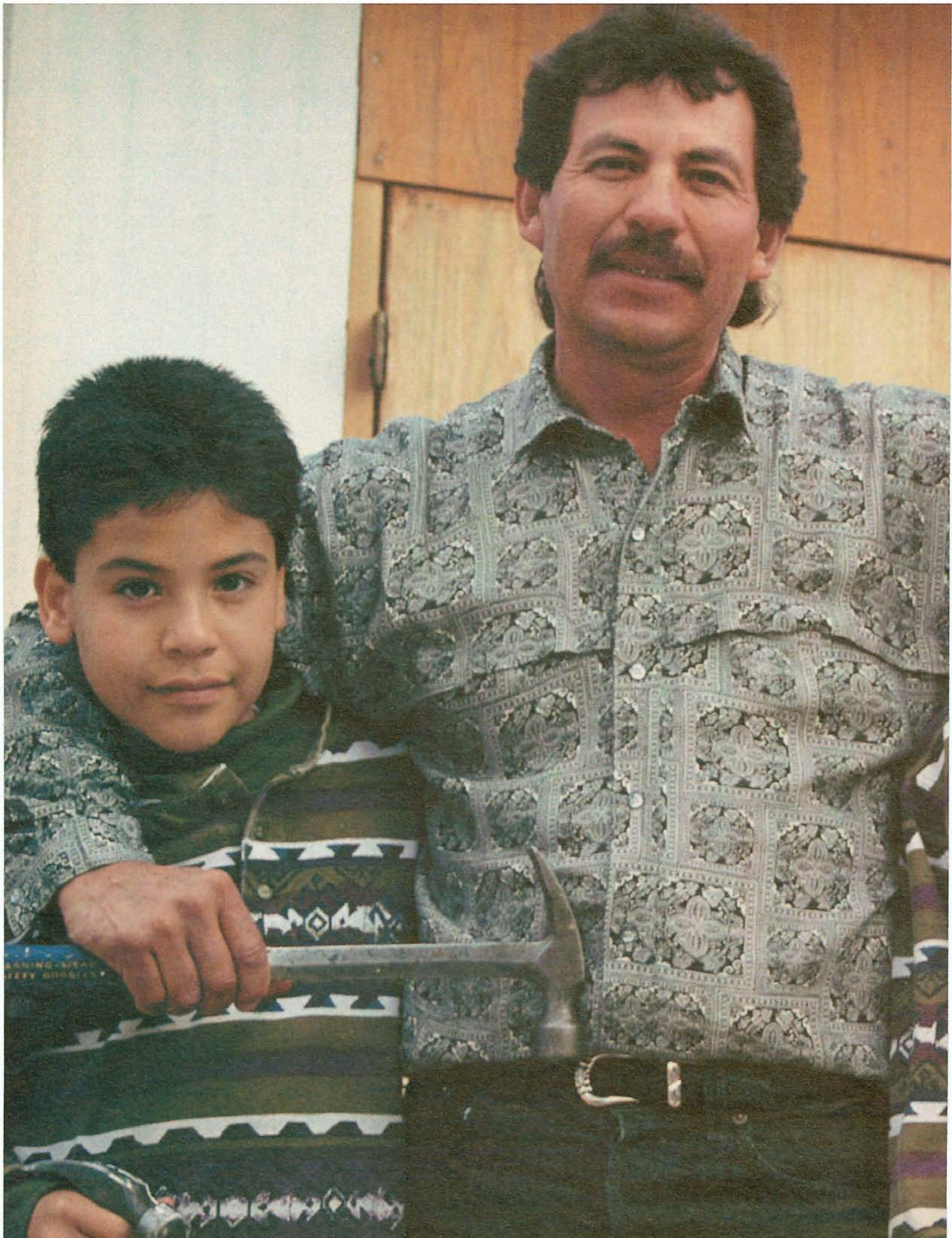
나는 아직까지도 기적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적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때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때로 가장 훌륭한 기적은 삶 속에서가 아니라 분향으로 돌아가는 데에서 일어난다. □

어머니가 임종시에 보여 준 평화로운 표정으로 나는 그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증거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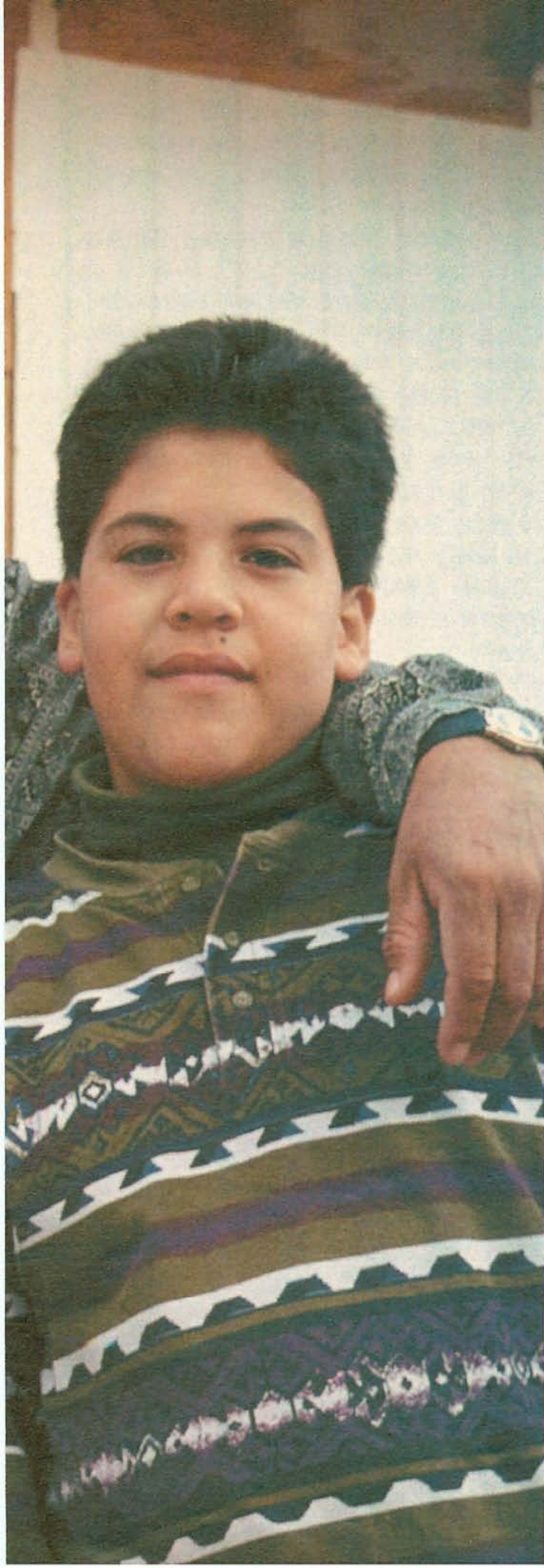












# 쌍둥이가 지은 집

리차드 엠 톰니

**여**러분이 최근에 행한 봉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봉사한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일이었는가?

텍슨 애리조나 링컨 스테이크, 노갈리스 지부의 12살 짜리 쌍둥이 형제인 제시 코타와 스티브 코타는 바로 그러한 봉사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원회의 봉사 계획이나 또는 지부장으로부터 임무 지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그 일이 필요함을 깨닫

.....  
*왼쪽부터:* 스티브 코타, 아버지 호세, 쌍둥이 형제인 제시, 위: 새로 지은 집 앞에서, 소년들, 아버지, 그들이 도운 가족



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행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집 없는 가족을 위해 집을 지어 주었다.

그 쌍둥이가 지은 집은 미국과 멕시코 경계에 자리잡은 도시인 멕시코, 노갈리스시의 산 중턱을 덮은 다른 집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주로 합판으로 만들어졌으며 배관 공사도 되어 있지 않은 작은 집이다. 그러나 그 집은 지금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 거리에서 살던 어머니와 다섯 자녀를 위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멕시코에 사는 저희 고모가 병원에서 그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고모는 그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을지 알기 위해 지부장단 제1보좌로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스티브의 설명이다.

물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그 소식은 재빨리 온 지부에 퍼졌다. 교회 회원들은 능력껏 기부했으며 건축업자인 코타 형제는 당시 건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 자재들을 기증할 수 있었다. 스티브의 고모는 집 뒤에 있는 땅을 새로 지을 집터로 기증했다.

“그러나 코타 형제는 아들들을 칭찬한다. “그애들은

.....

코타 형제는 “이 일을 통해 얻은 가장 보람있는 결과는 지금 이 집에 사는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애들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학교에 다닐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마루를 까는 일도 도왔고 시멘트를 반죽할 수 있도록 양동이로 물도 길어 주었습니다. 집의 골격을 만들 때부터 지붕 공사까지 도왔어요. 특별히 그 지붕이 마음에 듭니다. 아스팔트 판자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견딜 거예요.”

토요일마다 일해서 그 집이 완성되는 데는 삼사 주가 걸렸다. 스티브는 이렇게 말한다. “도움이 꼭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일을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 어떻게 지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배웠어요. 또 건축에 대해서도 배웠고, 아버지와도 더 가깝게 되었어요.”

제시는 “우리는 함께 못질하기를 좋아해요. 아마 자라서 건축가가 될거예요”라고 말한다.

코타 형제는 웃음만 짓다가 “이 일을 통해 얻은 가장 보람있는 결과는 지금 이 집에 사는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애들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학교에 다닐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소년들이 취미삼아 만든 새장과 스티브가 했던 야구 경기, 그리고 제시가 좋아하는 축구 이야기와 그들이 지은 집에 앞으로 옥외 화장실을 지을 계획 등에 관해 얘기하면서 좀더 시간을 보냈다.

그런 후 자녀에게 둘러싸인 그 아주머니가 코타 가족에게 진심어린 인사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이 분들은 제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



# 내가 받은 최고의 생일 선물

다카미 이와사끼 마스코

**나**는 비구니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5년 12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하여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변해 버렸다.

나는 주문 음식 회사의 배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계속 반복되는 일만 하는 직업이라 따분하게 느껴질 수

도 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나누며 새로운 친구를 사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종교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묻지 않는 한 내가 말일성도라는 사실을 결코 밝히지 않았다. 때때로 나는 일을 마치고 다시 방문해서 교회에









다가미 자매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배달을 가면 대부분의 고객은 집에 있었다. 그러나 부재중일 경우에는 배달물과 함께 짧은 글을 남겨 놓았다. 그런데 우에끼 부인은 내가 배달을 갈 때마다 매번 집에 없었다. 우에끼 부인은 내가 남겨 놓은 글에 답해 주기 시작했으며, 나는 매일마다 그 부인의 기분좋은 메시지를 받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 부인을 만난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멋장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으며, 부인은 내게 “수탉”이라는 별명을 만들어 주었다.

그 당시 나는 일본 홋카이도로 가서 선교 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3월 중순에 나는 부인에게 내가 떠난다는 것을 알리는 편지를 썼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를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우리의 우정이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그러나 여러 번 겸손히 기도한 끝에 마침내 그 부인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말일성도라는 것을 알리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부인에게 내가 교회에 가입한 이유와 18개월간 홋카이도에 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 주고 싶었다. 다음날 나는 편지와 함께 두 권의 소책자, *인생의 목적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부인의 집에 남겨 놓고 왔다.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에 도착한 지 2주일 후에 나는 멋장이 부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펴자마자 아름답고 낮익은 그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수탉씨, 어떻게 지냈어요? 하는 일은 잘 되어가는지요? 그곳 사람들은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식사는 잘 하나요? 잘 있는지 궁금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편지를 펴자 아름답고 낮익은 그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가 선교사들과 복음 토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읽으면서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인사말 다음에 몇 행을 띄운 후 새로운 글을 적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사끼 자매님”이라고 적었다.

“자매님은 마지막 배달 때 소책자를 제게 남겨 놓았죠. 저는 항상 친구들에게 참된 교회를 찾고 있다고 말해 왔어요. 자매님의 편지를 읽고 저는 그 소책자들을 읽어 보았어요. 제 마음은 벅차올랐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제껏 찾던 것일까?’라고 자문해 보았죠.

“또 자매님이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전화를 걸었죠. 저는 선교사들과 4월 9일에 만난 후, 계속하여 4월 12일과 16일 그리고 5월 2일에도 만났어요.”

나는 기쁨으로 마음이 떨렸다.

우리는 6개월간 계속 편지를 주고 받았으며 나는 그동안 그녀의 간증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1월 13일 교회에 갔더니 어떤 회원이 내게 소포가 와 있다고 말해 주었다. 소포 꾸러미 위에는 “생일을 축하해요”라고 써여 있었다. 멋장이 부인에게서 온 것이었다. 소포 안에는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수탉씨, 좀더 일찍 편지를 못해서 미안해요. 지난 금요일에 8살인 장남, 준야가 마지막 선교사 토론을 마치고 어제 침례 접견을 했어요. 우리 침례식이 언젠가 될지 맞춰 보세요. 좀더 일찍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날을 11월 27일로 잡았어요. 웬지 아세요? 그날은 바로 자매님의 생일이기 때문이에요!

우에끼 자매와 준야가 침례받게 된 날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훌륭한 생일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간 친구들이 나를 대신하여 침례식에 참석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에끼 자매와 그 가족이 복음 안으로 인도되도록 도와 주신 것을 감사 드린다. □

다가미 자매는 선교 사업을 마친 후 동경 성전에서 카쿠요시 마스꼬 형제와 결혼했다. 그들은 지금 일본 삿포르 스테이크의 도요히라 와드에 나간다.







# 주연 배우

다이안 호프만

베키 잭슨의 꿈은 실현되었다. 그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뮤지컬에서 주역을 맡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소망해 왔던 꿈이었다.

오디션에 대한 압박감은 있었지만 베키는 자신의 배역을 익히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였다. 그녀는 작품 대본을 집으로 가져 갔다. 그러나 대본을 살펴본 그녀는 의심적이며 해석이 분명치 않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곡들이 많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맡은 부분은 가장 최악의 것이었다!

올해는 고교 시절의 마지막 해며 또 그녀의 학교에서 처음으로 장기간에 걸쳐 뮤지컬 작품을 공연하는 해였다. 그녀가 공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망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피셔빌에 사는 베키와 가족은 심코 지부에 다니고 있으며 개종한 지 이 년이 되었다. 베키의 표준은 항상 높았지만 교회에 가입하여 학교에서 유일한 말일성도가 된 후에는 그러한 표준을 지켜 나가기 위해 더욱 굳게 결심했다.

그 작품의 첫번째 총연습 모임에 가서 그녀는 “담당 선생님께 그런 노래는 부를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라고 말한다. “선생님은 그런 곡은 재미있게 꾸며 온 것에 불과하다고 설득하시려 하셨어요. 선생님은 저를 주역에서 빼고 싶지는 않지만 그 노래에 그렇게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면 다른 곡을 부르게 해주겠다고 하셨



죠.” 그리고 그녀는 다른 곡을 받았다!

다음 총연습 때 베키는 합창을 하도록 지명받았다. 그에 대한 해명은 한 마디도 없었다. 다른 소녀가 베키가 맡았던 배역을 맡아 그 곡을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베키의 급우들이 그녀의 입장을 열심히 지지해 주어서 선생님은 마침내 그녀가 부르기를 거부했던 노래의 가사를 완전히 바꾸었다.

베키의 아버지 켈 잭슨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베키에게 뮤지컬을 계속할지 아니면 그만 들지 물어 보고나서 그애의 간증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베키는 ‘저는 이런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고 또 열심히 노력해 왔어요. 제 배역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뜻이 안 좋은 가사들을 없앴어요. 전 이번 작품을 잘 해보겠어요.’라고 말했죠. 여러 주에 걸친 연습 기간 동안 그애는 한번도 그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베키에게 선생님들이 원망스럽냐고 묻자, 그녀는 “전 그 노래에 대한 선생님들의 태도는 좋아하지 않지만 좋은 분들이예요. 그분들은 이 작품으로 학교를 빛내게 하 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라고 대답했다.

공연 첫날에 베키는 단 한 줄을 독창하는 짧은 배역 에도 커다란 기쁨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왜 베키가 좀더 큰 배역을 맡지 않았냐고 물었죠. 저는 그때 비로소 그애가 그 작품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베키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대로 살기 위해 개인적인 욕망을 버렸습니다. 베키는 복음 원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연 배역을 맡은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

위: 베키 잭슨은 학교와 교회에서만 바쁜 것이 아니다.

왼쪽: 그녀는 병원과 지역 활동에서 무료급 어릿광대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재주꾼이기도 하다.



# 달리지 않은 챔피언, 데이비

수잔 이 터너

우리 아들, 데이비는 국민학교 4학년 때 학교 크로스 컨트리 팀에 가입하면서 곧 달리기에 대한 놀라운 재능을 나타냈다. 그는 다른 선수에 비해 아주 빨랐으며, 우리는 그런 데이비를 무척 자랑스러워 했다.

데이비는 곧 몇몇 지역 코치들이 설립한 달리기 클럽에 가입하라는 초청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기가 막히게 좋은 기회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많은 시합이 일요일에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데이비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해에도 데이비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코치들은 남편과 내가 데이비의 클럽 가입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데이비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알려 주었다.

코치들에 대한 데이비의 답변은 “전 정말 클럽에 가입하고 싶지만 일요일엔 달리지 않아요.”라는 것이었다.

데이비는 육 학년 때 경주 마지막 부분쯤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방법에 진전을 보여 모든 학교 선수들 가운데서 계속하여 두 세 명 안에 드는 최고 선수 중 하나가 되었다. 다시금 경주 클럽에 가입하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이때는 특별한 매력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즉 그 선수들은 그 연령층에서 전국 결승전으로 미국을 횡단하기로 된 것이다. 코치와 팀 선수들은 데이비가 그들과 합류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해에 데이비는 신권을 받고 집사에 성임되었다. 데이비가 우리에게 그 경주 클럽에서 들어온 제의에 대해 의논할 때 우리는 다만 “얘야, 너의 신권 의무는 어떤 것이지?”라고 물었을 뿐이다.

팀에 대한 데이비의 대답은 “나는 일요일엔 교회에 가야 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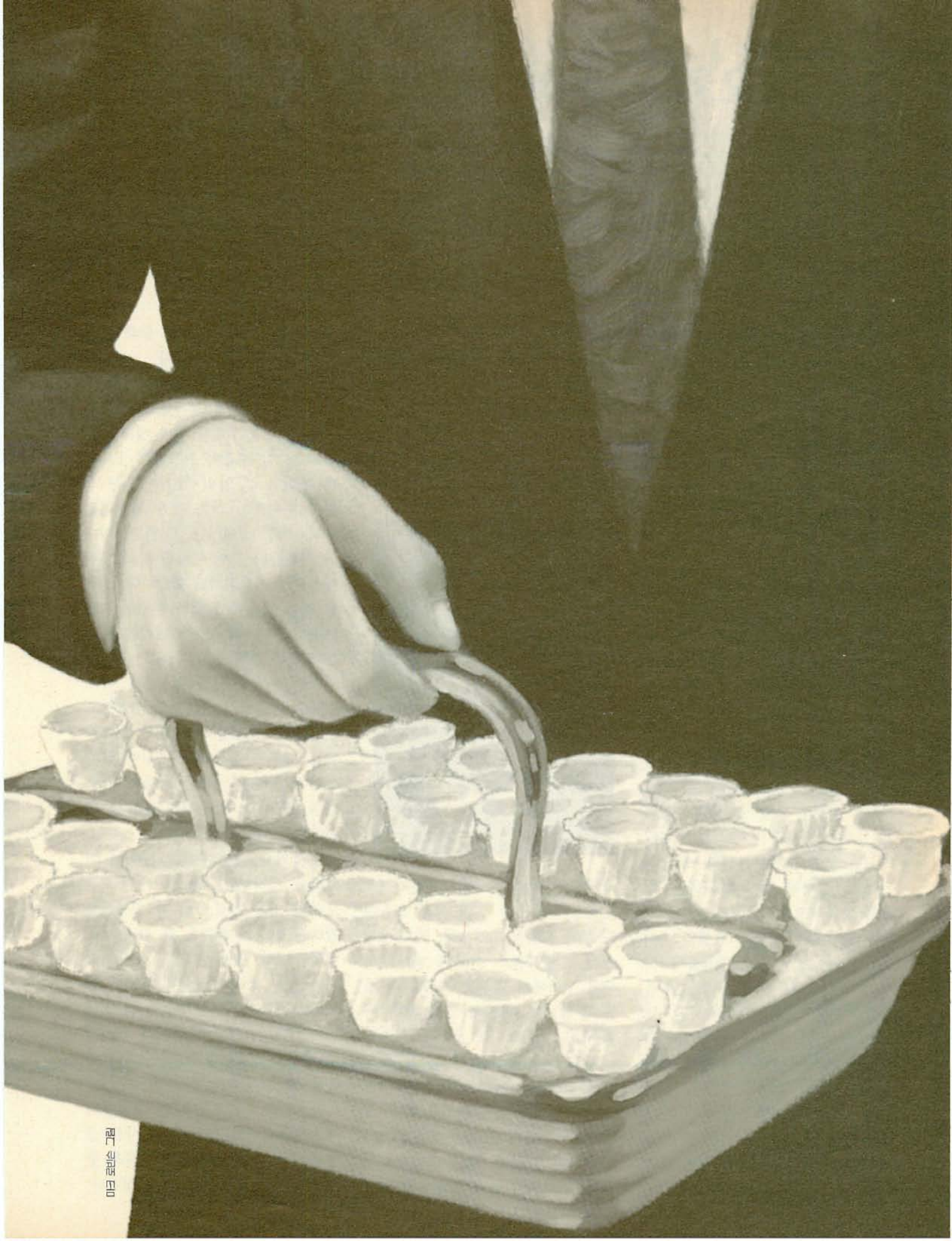
그 클럽은 전국 결승전에 참여하여 전국에서 모인 팀들과 겨루었으며 우승했다. 그들은 전국 챔피언이 되었다. 그들이 돌아오자 학교와 학부형 및 클럽의 코치들은 소년들이 챔피언이 된 것에 환호를 보냈다. 학교에서는 신문 기자와 T.V. 카메라를 동원한 특별 모임을 가졌다. 소년들은 박수 갈채를 받으며 한 명씩 이름이 불리웠다.

데이비는 앉아서 그가 달리 선택했다더라면 마땅히 받을 수 있었던 영예를 그 소년들이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데이비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은 무척 아팠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우리는 갈채하는 군중을 두고 떠나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서로 끌어 안고 잠시 동안 소리내어 울었다. 그런 다음 나는 데이비에게 그가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해 주었다. 데이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일을 했던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무척 매력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발전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칠 후 나는 한 친구에게 데이비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얼마 후, 그 친구는 데이비에게 트로피와 함께 편지를 보내 왔다. 트로피 위에는 “청소년의 챔피언, 데이비”라고 새겨져 있었다.

편지에는 “너는 선택하는 힘을 받았다. 네 모범에 감사한다. 너는 진정한 챔피언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







# 오직 의의 원리로써만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이것은 163번째 신권 회복 기념 노년 모임에서 인공 위성을 통해 중계된 말씀이다.

**이** 같은 모임에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밤에 모인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들과 성인들은 약 오십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왕 같은 제사장”(베드로전서 2:9 참조)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 권능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높고 엄한 표준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 특별한 육체 속에 존재하는 그 위대한 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찌기 윌포드 우드럼은 교회가 조직된 지 4년 후인 1834년 4월에 그가 겪은 일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언자 요셉의 지시로 신권을 받은 모든 형제들이 작은 오두막집에 모여 신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대제사만 몇 명 있었을 뿐, 사도도 칠십인도 없었으며 소수의 장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통나무 오두막 집의 작은 방에 모였던 적은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백만 명의 아론 신권 소유자와 구십만 명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 불어났습니

다.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이 살고 있던 커틀랜드는 조그만 곳이었습니다. 158년이 지난 지금은 엄청난 수의 성도들이 전세계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태리의 로마,



스위스의 제네바, 그리고 덴마크의 오덴스 등지에서 현지 신권 소유자와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특히 오덴스는 코펜하겐을 비롯한 덴마크의 여러 도시에서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네 지역의 형제들은 각각 다른 국기에 경례를 하며 각자 다른 국가의 시민이지만, 그들은 모두 공통되는 한 가지 위대한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줄로 함께 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수를 통해 신성한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들어서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전세계 138개국에 회원들이 퍼져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라면 어디나 그 일의 기초가 되는 신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작은 시작에서 강한 회중이 나타나며 결국은 시온의 스테이크와 와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이태리 전역에서 말일성도를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도 강하고 유능하며 주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에는 훌륭한 스테이크가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1961년에 필리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아주 소규모의 모임을 가졌으며, 그 중에서도 필리핀 원주민 회원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이십육만 삼천 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44개의 시온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고 많은 집회소 건물과 더불어 아름다운 성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고 가르치는 모든 과정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 중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속 충실하며 지식과 이해력이 커집니다.



오래지 않아 그들 중에서 감독,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축복사 및 성전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업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서 충실한 여성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성들은 참으로 열심히 일했으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자들을 찾고 가르치며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키워주고 훈련시키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리와 성약 1편으로 알려진 계시에서 주님은 복음이 회복된 이유 중 하나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교리와 성약 1:20)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 주님의 신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신권을 성임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들이 부여받은 권능에 대해 충실한 것은 아닙니다. 명목상 신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관심과 범법으로 말미암아 그 직책에 따르는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계속해서 복음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주의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올리버 카우드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교사의 직업을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던 도중 그들은 침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침례 요한이 내려와 그들에게 안수를 통해 아론 신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올리버 카우드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함께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신권을 부여해 주셨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안수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몰몬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금판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교회의 두 번째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경륜의 시대에 최초의 십이사도를 찾기 위해 예언자가 의견을 물어보았던 세 사람중에 속하기도 합니다. 올리버는 오늘날까지 힘차게 울려 퍼지는 말씀으로 사도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소한 일로 마음이 돌아서 버린 사람이 바로 그 올리버 카우드리였습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해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며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올리버가 교회를 등질 때까지 배도의 영이 그를 감아먹었습니다.

후에 그는 돌아와서 단지 회원으로라도 받아주기만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윌포드 우드럽은 이렇

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리버 카우드리를 보았을 때 대지가 마치 그의 발 밑에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런 영의 영향력 아래서 그가 전한 것보다 더 힘찬 간증을 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등진 순간 그의 힘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번갯불처럼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들릴라에게 사로잡힌 삼손처럼 힘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렸던 권세와 간증을 잃어 버렸으며, 교회 회원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생전에 그러한 것들을 다시는 충만하게 받지 못하였습니다.”(스탠리 알진, *올리버 카우드리—두번째 장로 및 서기*, 솔트레이크 시티:북크래프트사, 1962, 73쪽)

토마스 비 마쉬는 최초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으며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대단한 힘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그의 아내와 해리스 자매 사이에 벌어진 몇 포인트의 크림으로 인한 싸움에 얽혀 들게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십이사도 형제들과 마찰을 일으켰으며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때 사도였으며 십이사도 평의회를 관리하였던 이 강력한 사람은 그후 19년 동안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때 신권의 권세와 위엄을 지니고 이 사업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의를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형통할찌라”  
 (열왕기상 2:3)

을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어찌다 점차로 무관심해지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범법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한 교만하고 완악해져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주님은 신권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태버나클에서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교리와 성약 121편에 있는 다음의 위대한 말씀을 읽어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얼마 동안이나 흐르는 물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어떠한 힘이 여러 하늘의 운행을 막을 수 있으랴. 어느 사람이 연약한 팔을 펴서 하나님이 명하신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강의 흐름을 막아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으랴. 만일 그같이 할 수 있을 진대 전능하신 이께서 말일성도의 머리 위에 하늘에서 지식을 쏟아부으심을 막을 수 있으리랴.”(33절)

그분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신권을 성임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원리와 연관된 구절들을 더 인용하셨습니다.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떼어 낼 수 없나니, 하

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34~36절)

이 신성한 권능을 소유한 우리 모두는 이것이 최고의 진리임을, 즉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는 신권과 연관된



사진 촬영: 윌트 제이 링스턴

하늘의 권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권능은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니, 이 또한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

“보라 저는 깨닫기전에 홀로 있게

되어 [가시체를] 견어차며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도다.”(37~38절)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신권을 계속 소유하고 있을 지라도 그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신권을 받으면 그것을 영원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성약과 계명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식으로 죄를 짓고서도 여전히 자신이 신권의 권세를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과 구속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신권을 그렇게 행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도 더럽힙니다. 그들은 성임을 통해 주어진 신성한 은사도 더럽히며, 결국은 범법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권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에 빠졌거나 교만하게 행하거나 헛된 야망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지배하려 하는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사업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가



# 사도행전

능한 모든 계교와 술책으로 항상 교회 지도자를 흠잡고 하나님의 왕국을 헐어내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 중 몇몇 매우 영리한 사람들은 한때 신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닐 수 있었던 신권의 모든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홀로 있게 되어 가시채(사도행전 26:14 참조)를 뒷발질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표현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비판적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과 어른들에게 죄를 멀리하도록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바입니다. 죄와 신성한 권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역병을 피하듯이 외설물을 피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경우일지라도 성적인 죄는 피하십시오, 부정직과 기만을 멀리 하십시오. 모든 교만이나 헛된 야망을 통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아내와 자녀를 통어하고 강압하는 면은 없는지 또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교리와 성약 41~42절) 든다는 것을 항상 기

억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84편에 나온 대로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에 대해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임받고 난 후 죄에 빠지는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권을 성임받는 바로 그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맹세와 성약을 맺는 것입니다.

살렘의 위대한 대제사의 이름을 좇아 뿔기세덱이라 칭하는 신권에 성임되어 품위있게 행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동료들에게는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악마의 유혹을 거절하고, 친절과 사랑으로 가정에서 진정한 축복사가 되며, 아내를 동반자요 하나님의 딸로 인정하며,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육하여 의와 진리로 이끌도록 책임을 맡기신 영혼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얼마나 고결하고 훌륭한 성품을 갖추고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결코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마음대로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심을 알며 자신이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음을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오늘밤 이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지상의 다른 모든 단체와는 다른 이 위대하고 고귀한 단체의 회원이 되기에 더 합당하게 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낮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사무엘상 16:7 참조)

끝으로 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책임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찌라.”(열왕기상 2:2~3)

형제 여러분, 이 일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받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사업은 계속하여 번창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권능은 실제로 존재하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세상 그 무엇에도 축복이며, 거룩한 신권입니다. 이 신권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차장에서 드린 기도



덕 프리이어 그림

## 익명

**나**는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내가 옳다고 알았던 것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었던가에 놀랐다. 그날 밤, 나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슈퍼마켓 뒤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자살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죽기가 겁이 났다. 나는 두려움에 짓눌린 채 스스로 자초하여 내 인생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돌아보았다.

나는 말일성도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세미나리도 마쳤고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했으며 사랑받는 활동 회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브리감 영 대학교로부터 장학금 제안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다른 주에 있는 대학의 일류 야구팀에 지원해 보려고 결심했다. 직업 운동 선수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대학에 다니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생활 양식을 보았다. 사람들의 태도도 나와 달랐으며 나는 많은 다른 철학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차츰 교회 활동이 저조해졌으며 표준도 이내 흔들리게 되었다. 오랫동안의 교회 생활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서슴치 않고 나는 주님의 영을 무시하였다.

나는 새로운 사상과 유혹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나는 마약과 술에 빠지기 시작했으며 교회 회원이 아닌 소녀와 데이트하기 시작했다. 더우기 나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차를 사고 싶었으며 그래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그 야구팀마저 그만두었다. 여자 친구와 마약

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 수 업도 빠졌다.

중독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이 년도 채 못되어 일을 계속할 수 없었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해변에서 나는 친구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진 상태로 병마져 들어 있었다.

그날 밤, 슈퍼마켓의 주차장에서 나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가운데 나는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이 참되기를 바라며 또 누군가가 들어 주기를 바라며 도움을 간청하였다.

갑자기 놀랍도록 따뜻한 기운이 머릿 속으로 밀려들었으며 곧 이어 온 몸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이전에 그토록 강하게 주님의 영을 느껴 본 적이 없었다. 평온한 마음에 감싸여져서 나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마침내 다시 일어섰을 때 나는 두려움과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도움을 구하는 필사적이고 진실한 기도가 응답된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은 길었으나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나는 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진지하게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동안 남 캘리포니아의 약물 중독자 재활원 책임자로 봉사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권세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보았다. 또한 주님의 가르침에 유의하지 않고 절망과 타락 속으로 더욱 빠져드는 사람들도 보았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며 한편으로는 나의 절망적인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주님께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 □



#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

**본** 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레인 엘 잭 자매는 “이 교회의 여성들은 확고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변화 무쌍한 현실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며 개인적인 재능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적인 관심사를 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 왕국을 세우는 데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어떻게 우리의 목적에 계속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남에게 친절함으로써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음**

신약에는 “선행 ...[을] 심히 많”이 행했던 요바의 도르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행한 “구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녀가 죽어서 셋기워 다락방에 누웠을 때 “모든 과부가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어 보였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불리워 와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가 살아나도록 기도한 후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의 산 것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9:



로리 앤더슨 펠 그림

36~41)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작은 친절을 통해 왕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교리와 성약 64:33)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미소를 보이거나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거나 연로한 자매님과 함께 산책하고 또 지역 사회의 의로운 목적을 옹호해 주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속합니다.

스위스 루센의 마르타 쉼타덜만 자매는 토요일 아침마다 노점 꽃장수의 첫번째 손님이 됩니다. 그녀는 다음 주가 생일인 두 명의 친구를 위해 밝은 핑크색의 어린 장미를 조금 사고 그 다음엔 다른 꽃가게에서 밝은 노랑색의 꽃을 삽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그 아름다운 꽃다발과 지난 일요일에 훌륭한 기도를 해주었던 다른 친구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만든 머핀을 바구니에 함께 담습니다. 그런 후 자매들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

들을 기억하고 그들에 대해 생각하며 또한 친절의 행위로 사랑을 보임으로써 그 작은 스위스 지부에 기쁨을 확산시킵니다.

- 오늘 나는 어떤 친절을 베풀 수 있는가?

**우리는 간증을 나눔으로써  
왕국을 세울 수 있음**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간증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또다른 방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에게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보나오의 오바리스 카바 자매는 “제 간증을 전하는 것은 오렌지를 주고 받는 것과는 달라요. 오렌지를 주면 내손에 남은 양은 점점 더 줄어들지만 간증은 점점 더 자라게 되며, 따라서 저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 나는 오늘 누구에게 내 간증을 전할 수 있는가?

**“기운을 내어”**

주님은 “기운을 내어 ...라. 나 주가 너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68: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악마가 그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시기에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온의 자매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디모데후서 1:7)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



# 로렌조 스노우

## 한 젊은이의 결정

아서 알 바세트



**교**회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선교 사업이나 결혼, 대학 진학, 군 복무 및 종교에 관해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되는 십대나 혹은 이십대 때에 처음으로 종교에 관해 심각한 번민을 하게 된다. 교회의 제5대 대관장인 로렌조 스노우도 성년기에 막 접어들면서 바로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 전도 유망한 미래

로렌조 스노우는 초창기 교회 지도자 중 공식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소수의 회원 가운데 하나였다. 청년 로렌조는 그 진보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장로교 계통의 오하이오주 오벌린 대학에 다녔다. 이 학교는 남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여학생들을 받아들인 미국 최초의 대학 가운데 하나였다. 1830년 노예 제도에 반기를 들기로 제후한 유망한 젊은이들이 무리를 지어 오벌린으로 들어 왔다. 그들

은 1836년 당대의 저명한 목사인 찰스 피니에게 오벌린으로 와서 신학 교수직을 맡아 달라고 권유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은 로렌조 스노우가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던 무렵에 일어났다.

로렌조 스노우는 “세상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 대학의 인문 교양 교육을 받고자 하는 나의 포부를 충족시켜 줄 전망이 있는” 오벌린으로 갔다.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난 로렌조에게는 그가 큰 명성을 떨치기를 열렬히 지켜보고 있는 친구와 친척들이 많았다. 이들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맥킨리는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당대의 촉망받는 모든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로렌조 역시 주위로부터 어느 정도 종교적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었다. 한편 대학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누이인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만약 이곳 오벌린 대학에서 찾을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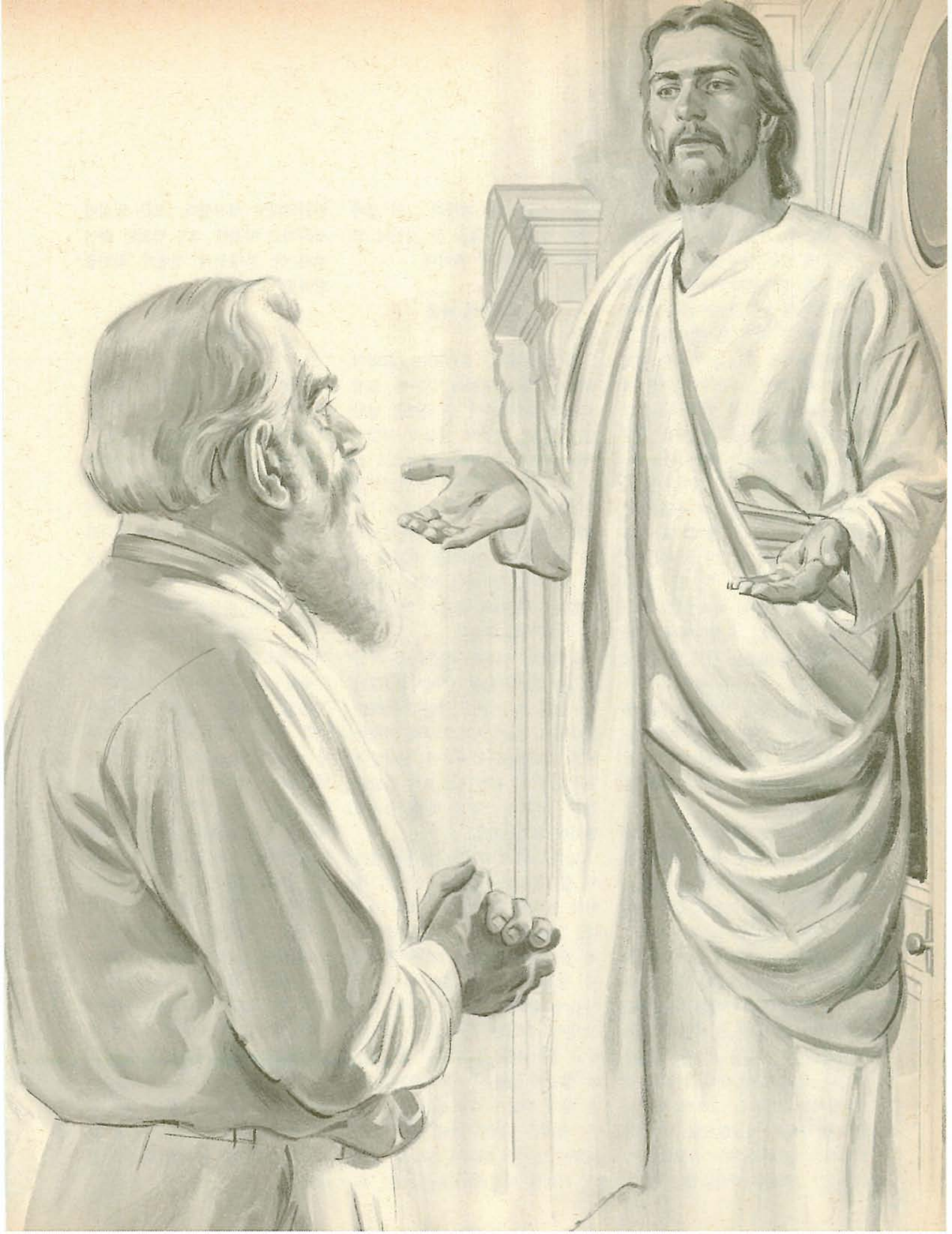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종교에 종말을 고하겠습니다.”

### “나의 이해심에 빛이 밝혀졌음”

남동생과 남달리 가깝게 지냈던 엘리사는 그의 군에 대한 관심 때문에 걱정이 컸다. 영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진 2차 독립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며 또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권좌에 있을 무렵인 1814년에 태어난 로렌조는 군인 생활에 매료되어 있었다. 엘리사는 동생이 한창 젊은 나이에 외국의 전장에서 생을 마치게 될까봐 늘 걱정이 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종교적 관심사로 향하고 있었다.

로렌조 스노우가 평생을 걸쳐 겪은 영적인 경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험은 구세주께서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때에 이루어졌다.







엘리사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더불어 교회에 가입했으며, 로렌조가 오벌린에 있는 동안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이주했다. 한편 로렌조 역시 복음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는 그를 커틀랜드로 데려올 기회를 엿보았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오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알게 되고 그에게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로렌조는 1831년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요셉 스미스와 우연히 만났을 때 예언자가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당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결코 소멸되지 않을 빛이 나의 이해를 밝혀 주었습니다.” 후일 오벌린에서 수학하는 동안 로렌조는 사도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을 만나 복음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토론했다. 그 결과 그는 교회를 옹호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으며, 대학에서는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인기를 잃게 되었다.

미국 교육의 초기 역사를 보면 명망있는 학자들은 모두 히브리어와 희랍어를 배워야 했다. 1836년 당시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거주하고 있던 요셉 스미스와 기타 교회 지도자들은 예언자 학교를 세워 히브리어 학자인 조수아 섹사스 박사를 채용해 히브리어를 가르치도록 했다. 로렌조는 오벌린에서 고전어에 관한 공부를 막 끝낸 상태였으나 히브리어에 대해 완벽히 알고 있지는 못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남동생에게 커틀랜드로 와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라고 권고했으며, 그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로렌

조는 아마도 이 여행이 그의 생애 어떤 변화와 영향을 줄 것인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 교만과의 싸움

커틀랜드에서 로렌조는 교회의 축복사이자 예언자의 부친인 요셉 스미스 일세에게서 큰 감명을 받았다. 여전히 교만과 세상적 야망과 싸우고 있던 로렌조는 영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때때로 예언자가 “성신으로 충만하여 천사장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가득 차” 말씀할 때면 이를 귀담아 들었다. 예언자의 얼굴은 “쌓여 있는 눈빛”처럼 빛났다.

로렌조의 영혼은 반응하기 시작했으나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만일 그가 전도 양양한 미래를 고대하고 있는 그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가난하고 무지하며 천시받던 ‘물몬인들’과 함께 함으로써 실망을 안겨 준다면 그들이 받을 충격은 얼마나 크겠는가?

요셉 스미스 일세는 청년 로렌조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해 준 적이 있었다. “염려하지 말고 상황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알려 주실 것이며, 그러면 형제님은 침례를 받고 싶어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청년은 놀랐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찾게 되면서 축복사의 그와 같은 약속은 성취되었다. 로렌조는 1836년 22세의 나이에 침례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이 불

완전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이전에 그가 받았던 확인보다 더 분명하게 성령의 확인을 받기를 갈구했다.

### 완전한 지식

침례 후 2~3주 만에 로렌조는 자신이 원하던 확신을 받았다. 복음에 대한 첫 간증을 구하던 시기에 그는 매일 밤 집 근처 무덤으로 가 기도으로써 주님을 찾았다. 어느 날 저녁에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하늘이 마치 자신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낫쇠판 같아 보였다.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기도하는 장소로 갔다.

후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도를 드리려고 입술을 떼자마자 머리 위에서 비단 옷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곧이어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더니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전신을 감싸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 내게 이해의 눈이 열리면서 정신적, 영적인 암운에서 벗어나 빛과 지식의 광채로 변화된 상황을 그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신권 및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완전한 침례였습니다. 단순히 침수로써 받는 침례 이상으로 제 육신의 모든 부분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확실한 침례였습니다.”





42일간 폭풍우치는 바다에서 지내는 동안 배가 광풍과 산더미 같은 파도로 기우뚱거리는 가운데도 스노우 장로는 잉글랜드로 주님의 심부름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화평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식은 세상이 그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모든 부나 명예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신앙 안에서 성도와 하나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신앙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그가 소망하던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

**지갑이나 전대없이**  
(교리와 성약 24:18 참조)

그러나 어떤 전쟁도 단 한번의 전투로 승리할 수는 없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로렌조

스노우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대관장단의 일원이자 전직 목사였던 시드니 리그돈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로렌조에게 학업을 계속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한때 오벌린 대학생이었던 그의 마음에는 다른 목표가 있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남에게 전도를 하는 일이 생각만 해도 큰 걱정이 되었지만, 로렌조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1837년 봄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로렌조는 지갑이나 전대도 없이 오하이오에서 전도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이것은 그가 평생 동안 겪은 가장 고된 시련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지갑이나 전대없이, 특히 돈지갑을 갖지 않고 길을 나선다는 것은 독립심을 타고난 저에게는 건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스스로 일할 나이가 된 때로부터 “내것은 내가 지불”한다는 생각이 제 자존심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님의 종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에게 지갑이나 전대없이 나가기를 바라신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없었다면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생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관한 저의 의무가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에는 근심이 앞섰지만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서 스노우 장로는 첫 선교 사업을 떠났다. 그는 친척 아주머니를 방문하고 난 다음 약 50km를 여행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몰몬 장로로서 첫 공식 방문을 했으나 하룻밤 숙식을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날 밤 여덟 번에 걸쳐 방문을 한 후에야 겨우 숙소를 얻었다.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잠자리에 들었으며 아침에는 식사도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그의 첫 선교 사업에 대한 대략의 내용이다. 그러나 낙심만 하고 있을 그는 아니었다. 그는 고향인 오하이오주에서 선교 사업을 충



실히 해내 일부 친척과 친구들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그후로 성도들과 함께 미주리주로 갔다.

### 추가 선교 사업

1838년 가을 무렵 선교사로 부름 받고 싶은 마음이 크게 용솨음쳐 그는 여름내 거의 병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교 사업에 종사하기를 소망했다. 몸은 쇠진한 상태였으나 만일 자신이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선교사의 부름이 오자 그는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 길을 떠났다. 힘이 달려서 처음에는 얼마 가지 못해 앉아서 휴식을 취해야 했다. 하지만 다시 원기를 찾기 시작했으며,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두번째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로렌조는 네 개의 주에서 봉사했다. 그후 2월에는 귀환할 준비를 하면서 켄터키주에 머물렀는데, 귀환하려면 폭설을 헤쳐가며 8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해야 했다. 수중에는 단돈 일달러 이십 오 센트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귀환 여행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여행을 하는 동안 대부분 양말은 진흙 투성이에 눈과 비가 새어들어와 흠뻑 젖었으며, 따듯한 불 가까이 잠자리라도 마련한다면 그것은 운이 좋은 경우였다. 이번 여행으로 인해 젊은 선교사는 완전히

기진 맥진해졌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가족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다. 가족들의 품안에 안기자마자 그는 혼절했으며, 고열에 시달려 수일간이나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 화평으로 충만함

이상이 로렌조 스노우의 초기 사업에 관한 것인데, 이는 그후 있을 선교 사업의 서두에 불과하다. 다음해 그는 영국으로 갔다. 그는 42일 동안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있어야 했다. 숙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그때 겪은 폭풍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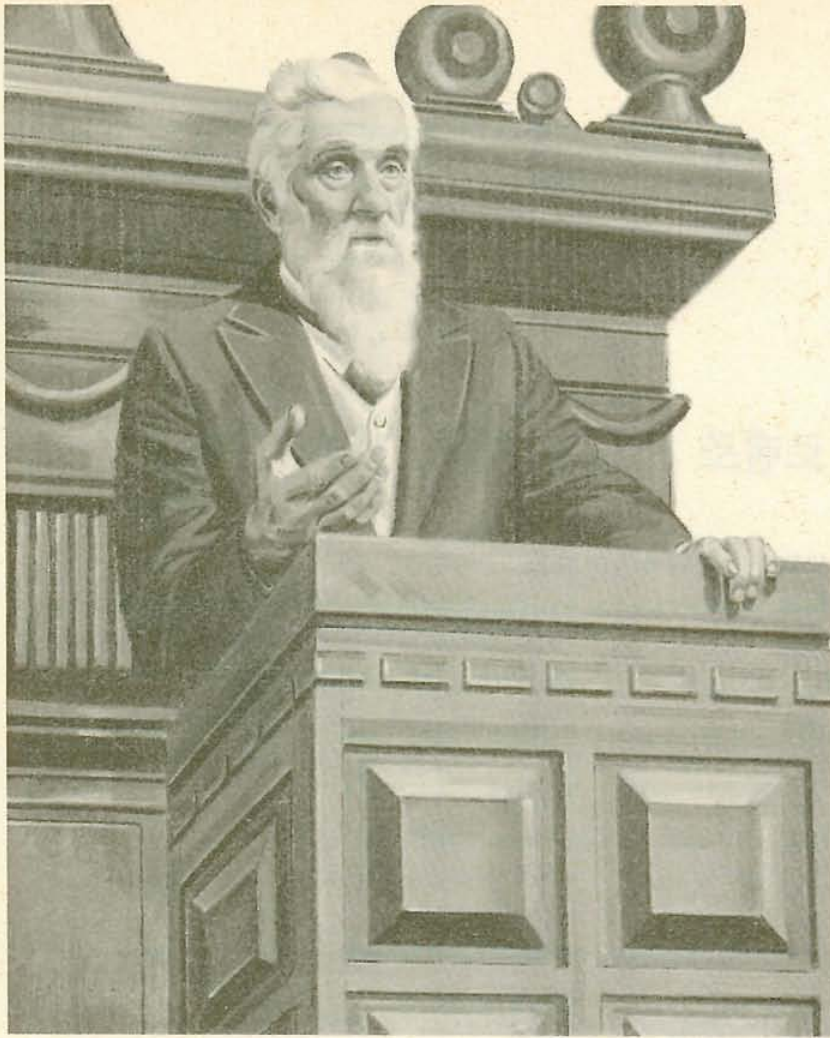
“이 무시무시한 폭풍우 속에서 커다란 물통 옆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양손으로 밧줄을 꼭 잡은 채 ...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요동치고, 때로 산더미만한 파도가 갑판 위를 덮치면서 폭우처럼 바닷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가까이에서 앉아 있던 사람은 얼굴이 공포에 질린 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파도가 뱃전에 흠어지면서 그 사람을 앉았던 자리에서 내동댕이쳐 반대편으로 나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팔이 골절되고 온몸은 흠뻑 젖어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갑판 아래에서는 상자들이 파손되어 신음소리를 내거나 울고 있는 여자와 어린이들 주변으로 나뒹그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노우 장로는 자신이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교리와 성약 64:29) 자라는 사실로 인해

화평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러한 장면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과 아주 흡사하다.(사도행전 27장 참조). 사실상 선교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로렌조 스노우와 바울은 상호 유사한 점이 많다. 스노우 장로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도 수년간 더 많은 선교 사업을 했다. 사도로서 부름받은 뒤 그는 이태리와 스위스 및 몰타에서 선교 사업의 초석을 놓았으며, 몰몬경의 이태리어 번역을 감수했다. 후일 그는 미국의 서북부 지역과 하와이 및 팔레스타인에서 봉사하기도 했다. 선교 사업을 마칠 때까지 그는 대양을 여덟번이나 횡단했고, 24만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했으며, 그 모든 비용을 자비로 충당했다.

1898년 9월 13일 84세에 그는 교회의 제5대 대관장이 되었다. 스노우 대관장은 품위있고 신사적인 태도와 주님을 향한 심오하고도 영적인 헌신, 개척자 및 입법가로서의 훌륭한 자질, 교육가로서의 업적 등 제반 측면에서 길이 기억되어야 한다. 특히 선교사로서 기억되어야 하겠다. 그가 대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론 업적 가운데 중시해야 할 것 중의 하나로서는 선교 사업을 전세계적으로 신장시킨 점을 들 수 있다. 그는 젊은이들을 5~6개월간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파송했다. 히버제이 그랜트 장로에게는 일본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했으며, 또한 러시아, 오스트리아 및 라틴 아메리카에 복음을 전해 주는 일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대관장 재임 첫해에는 천 명이 넘는 선





로렌조 스노우가 대관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는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도록 강조한 사실을 들 수 있겠다. 그는 이로 인해 그 당시 교회가 안고 있던 엄청난 부채가 정리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교사를 불러 세계 도처에서 봉사하도록 했다. 이 숫자는 교회 역사상 초유의 것이었으며, 그후 20년 동안 이처럼 많은 숫자가 파송된 적이 없었다.

### “온전하고 정직한 십일조”

아마도 로렌조 스노우가 대관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는 말일성도들에게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도록 강조한 사실을 들 수 있겠다. 이로 인해 교회는 재정적으로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898년 교회는 많은 빛을 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복수 결혼을 문제삼아 대부분의 교회 재산을 몰수했기 때문이었다. 1899년 스노우 대관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이는 우리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응답입니다. 교회 자체에서 우리는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건대, 만일 이 백성들이 온전하고 정직한 십일조를 드린다면, 우리는 부채로 인해 겪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충실히

따랐으며, 그 결과 교회의 부채는 스노우 대관장이 타계하기 전에 완전히 정리되었다.

### “대면하여”

로렌조 스노우가 일생에 걸쳐 겪은 영적인 경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험은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의 사후에 이루어졌다. 그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스노우 대관장은 솔트레이크 성전으로 갔다. 성전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전에도 종종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우드럽 대관장이 보다 오래 사셔서 자신이 교회 대관장으로서의 벅찬 임무를 수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기도를 마친 후 스노우 대관장은 잠시 동안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갑자기 그에게 영광스런 일이 전개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후일 스노우 대관장은 자신의 손녀에게 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일어났던 성전내의 지점을 보여 주었다. 이 손녀딸은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할아버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시더니 왼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닥에서 약 삼 피트 정도 위 바로 이곳에서 계셨단다. 그분은 마치 단단한 금판 위에서 계시듯이 보이시더구나.’



“할아버지는 제게 구세주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신 인격체이신가를 말씀해 주셨으며, 그분의 손과 발, 용모 및 아름다운 흰색 성의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흰 광채를 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구세주를 거의 볼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또 한 걸음 다가 서시더니 오른 손을 제 머리에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난 네가 이것이 네 할아버지의 간증이고, 이 할아버지가 이곳 성전에서 구세주를 직접 보았으며 그분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다는 사실을 직접 네게 이야기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로렌조 스노우가 대학생 시절에 종교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는다. □

#### 참고 자료

1. 엘리사 알 스노우, 로렌조 스노우의 전기 및 가족 기록, 솔트레이크시티, 1884년.
2. 로로이 시 스노우, “나의 부친의 경험,” *임프르브먼트 이라*, 1933년 9월호, 677~679쪽
3. 프란시스 엠 기본스, 로렌조 스노우, 영적인 기록, 하나님의 예언자, 솔트레이크시티, 1982년.
4. “로렌조 스노우,” *몰론 백과 사전*, 뉴욕: 맥밀란 출판사, 1992년.

## 로렌조 스노우 약력, 1814~1901

년도	나이	사건
1814	-	4월 3일 오하이오주 맨추어에서 출생.
1831	17	어머니와 누이가 말일성도 교회에 가입, 그는 요셉 스미스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음.
1835	21	오벌린 대학 입학, 누이인 엘리사가 교회에 가입.
1836	22	커틀랜드에 있는 히브리어 학교에 다님, 6월 19일 침례받음.
1837	23	오하이오주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38~39	24~25	미주리주 파웨스트로 이주, 미국 중서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함.
1840~43	26~29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함,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몬경을 선물함.
1845	31	결혼함.
1846~48	32~34	대평원을 가로질러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
1849	35	2월 12일 사도로 성임됨.
1849~52	35~38	유럽에서 선교 사업을 하며 이탈리아, 스위스 및 올타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
1852~81	38	유타주 주의원에 선출, 29년간 봉사함.
1853	39	유타주 브리감 시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음.
1872~73	58~59	팔레스타인을 여행함, 유대인들의 집합 장소로 두번째 헌납.
1872~82	58~68	유타주 지역 평의회 회장 역임.
1873~77	59~63	브리감 영 대관장의 보좌로 봉사.
1885	71	미국 북서부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부에서 봉사.
1886~87	72~73	복수 결혼을 한 것으로 인해 11개월 동안 감옥에 간힘.
1889	75	4월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됨.
1893	79	솔트레이크 성전장이 됨.
1898	84	9월 13일 교회 제5대 대관장으로 지지됨.
1899	85	전교회에 십일조에 관해 재강조함.
1901	87	10월 10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별세.



#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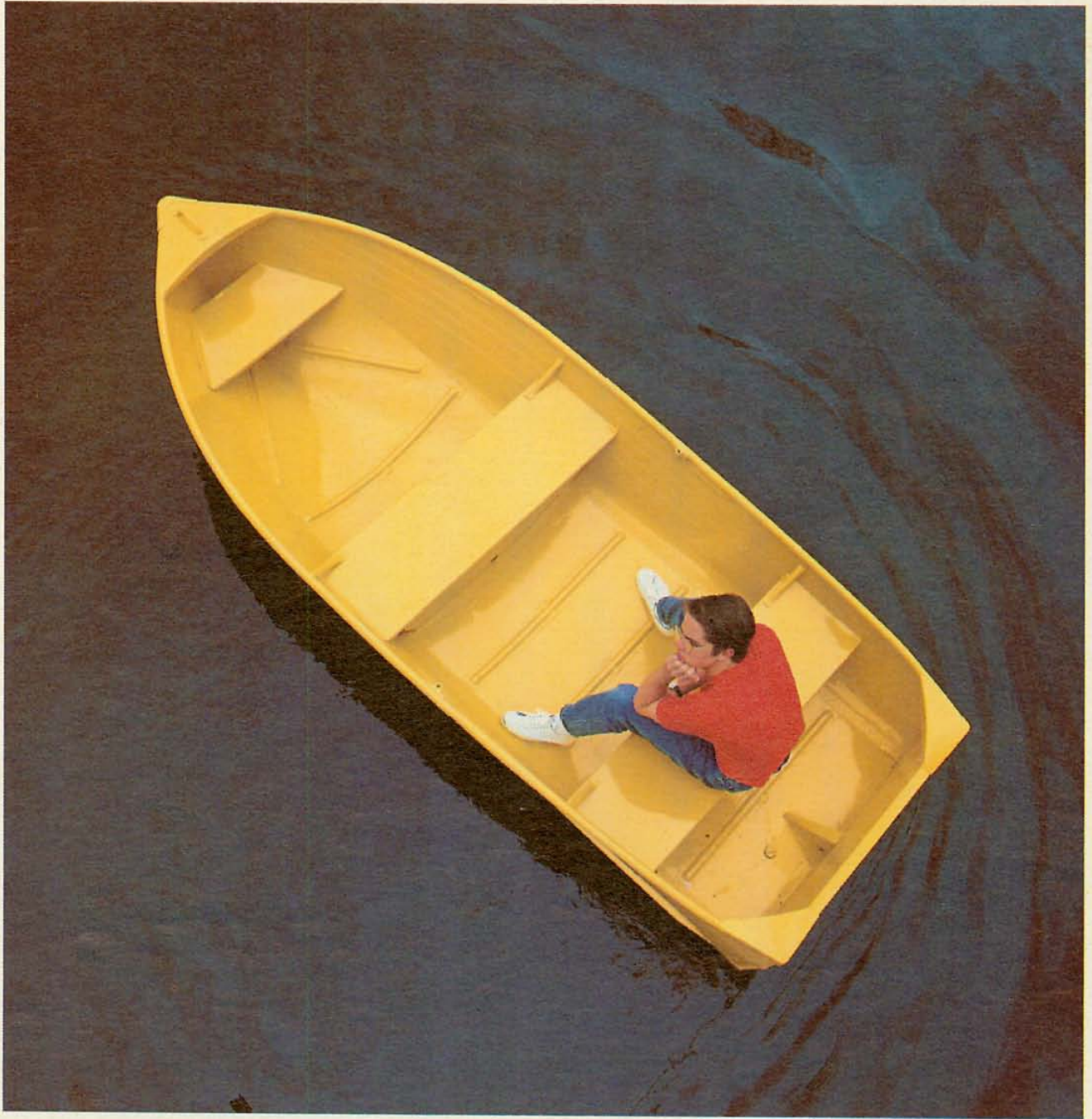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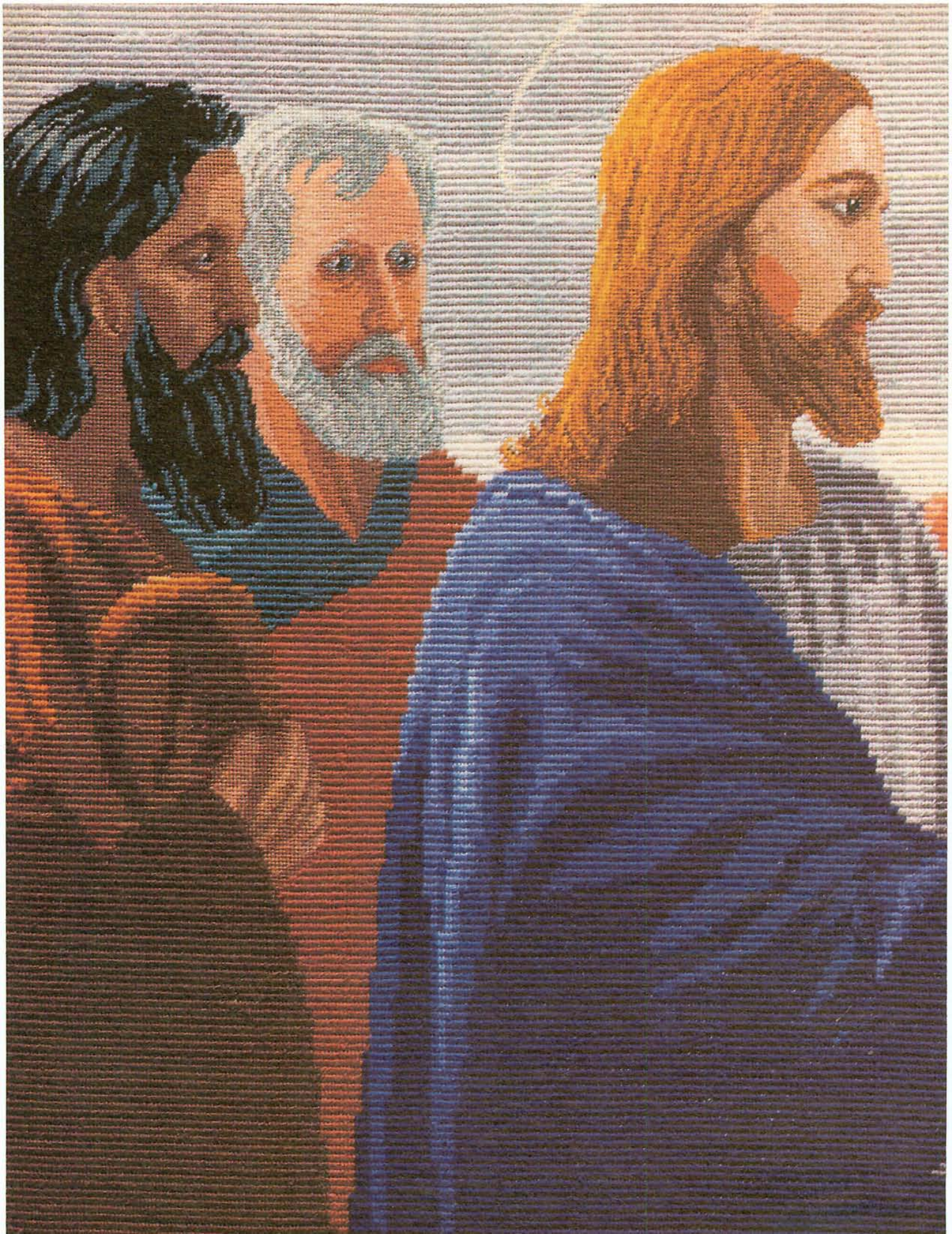
사진 촬영: 진복

행함이 없는 신앙은 노가 없는 나룻배와 같습니다: 그런 배로는 어떤 곳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표류하기를 그치고 노젓기를 시작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게 될 것입니다.(야고보서 2:17~18 참조)







# 따스한 손길과 마음으로

.....  
마조리 드래퍼 콘더

이러한 누비

천과 옷감을

가지고 말일성도

예술가들은 바늘과 실로

자신의 간증을

표현해 왔다.

.....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니들포인트, 1988년, 카타리나 블라,  
알렌, 독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마태복음 13:3).

니들포인트란 실땀을 이용하여  
캔버스 위에 놓은 자수의 형태이다.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단단히 직조된  
디자인 혹은 내구력이 큰  
그림이 탄생된다.





**오** 레곤주 샌디의 린 도거티는 창세기 37장 3절에서 다음 구절을 읽었다. “이스라엘이 그를 [깊이] 사랑하여 ...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옷이 부자간의 특별한 유대를 상징했음을 깨달은 도거티 자매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현대의 부모와 자녀간의 특별한 유대를 나타내는 코트를 만들었다.

도거티 자매처럼 옷감과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멋지고 실용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내는 예술가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예술가들은 대개는 가정 주부들로서 천을 이용해 가족들의 옷을 만들고 집안을 장식한다. 이들은 실용성에다 미적 요소를 덧붙여 예술을 창조해 낸다. 전통적으로 섬유 예술은 여성들이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남성들도 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다른 민속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섬유 예술가들도 기존의 예술품에서

이미지를 찾아내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민속 예술가들은 이를 원작자에 대한 찬사로 생각한다. 말일성도 민속 예술가들 역시 낯익은 이미지를 흔히 사용한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성전, 가족, 선교사들 및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술가들마다 창의적인 시각은 서로 달라도 그들은 작품을 통해 “나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라”는 친숙한 이미지를 표출해 낸다.

예술가가 자신의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여 색다른 방법을 이용해 친숙한 이미지를 재창조할 때마다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가 전개된다. 가족은 영원함(39쪽)이라는 제목의 필리핀의 수예품은 이러한 범례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친숙한 이미지를 보게 되지만,

예술가가 지닌 문화가 야자나무와 밝은 색채 가운데 반영되어 있다.

교회가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번창함에 따라 말일성도 예술 또한 여러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빌어 예술가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투영해 나갈 것이다. □

마조리 드래퍼 콘더는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장이다.



현남, 누비옷, 1988년, 린 도거티, 샌디, 오렌군주

“이스라엘이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창세기 37:3)

도거티 자매는 모친의 70회 생신을 위해 이 누비 코트를 만들었다. 맨먼저 그녀는 여러 가지 천을 모아 작은 조각으로 자른 다음 옷본에 따라 이를 함께 꿰맸다. 이로부터 도거티 자매는 코트의 각 부위별로 앞면, 뒷면, 소매 등을 재단했다. 그런 다음 코트의 각 부분을 누비고 이를 조합해 꿰매어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었다. 이처럼 사용 천 조각을 한데 꿰매는 과정은 초기 미국 역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개척자들은 낡아서 헤진 옷에서 사용 가능한 옷감 부분을 잘라내서 이를 조각들을 함께 꿰매어 모포나 기타 옷으로 누벼 쓸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조각 천을 이용한 복합 디자인이 개발되기에 이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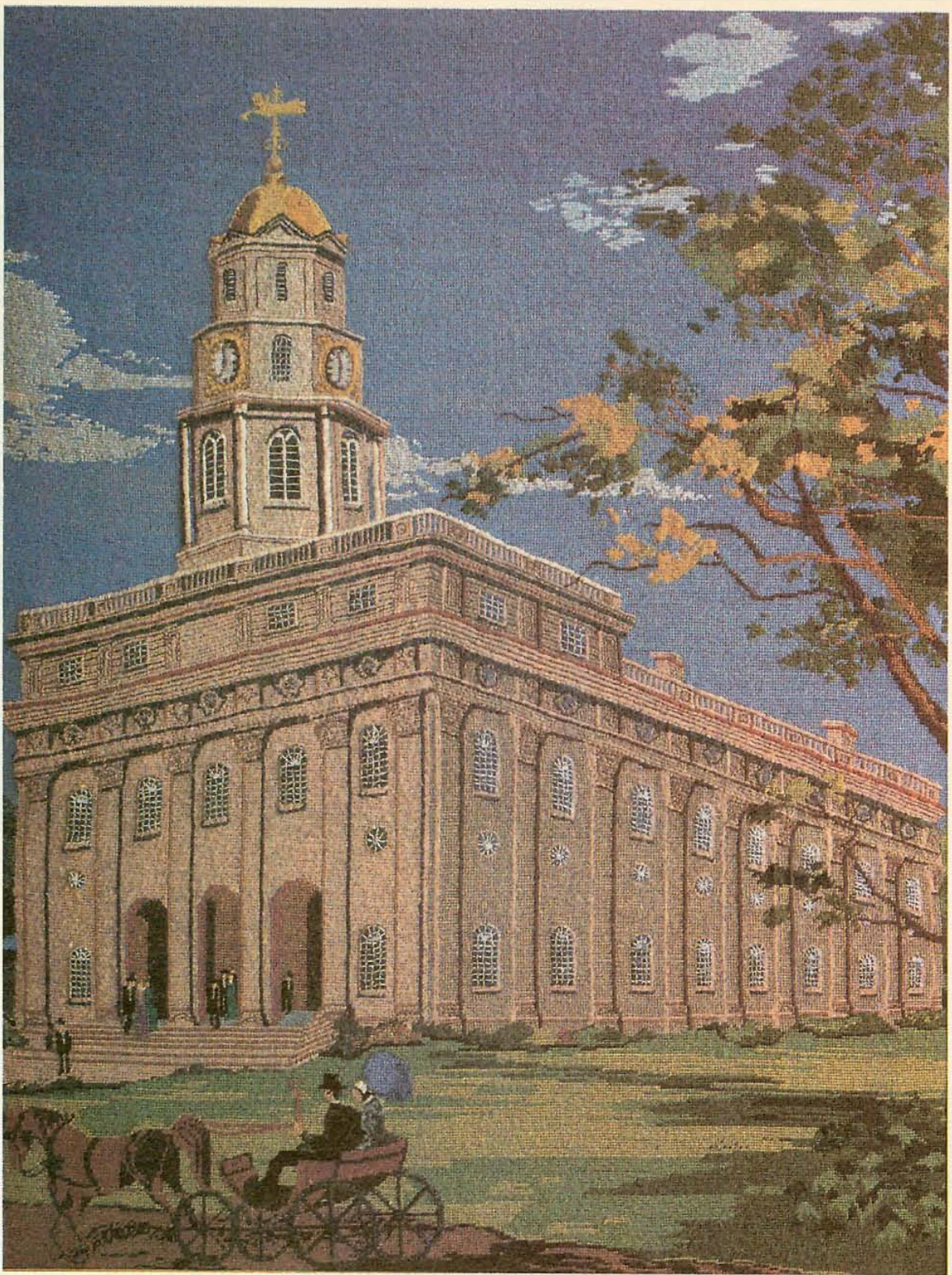


갈매기의 기적,  
 이불, 1990년,  
 마르바 이 데일보우트,  
 세인트 조지, 유타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3:4)  
 이 디자인은 곤충을  
 먹어치우는 갈매기의  
 기적과도 같은  
 출현으로  
 매뚜기 떼로부터  
 개척자들의 수확물이  
 보존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브라함, 충실한 자들의 아버지, 아플리케, 1990년, 루스 드브레즈,  
 잉글우드, 콜로라도주.  
 “나는 네 이름을 통하여 저들을 축복하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아 일어서서  
 너를 저들의 조상으로 축복하리라.”(아브라함서 2:10).  
 아플리케란 여러 가지 크기의 천 조각들을 하나의 큰 천에 붙여 꿰매는  
 과정이다. 두브레즈 자매는 아주 다양한 옷감과 색채 및 패턴과 더불어 천을  
 사용하여 아브라함의 유목 생활에 대한 감을 포착하게 되었다.





나부 성전, 니들포인트, 1986년, 헬가 스테펠, 오스트리스란트, 독일.

“내 이름으로 이 집이 건립되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곳에서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의식을 나타낼 수 있게 할지이다.”(교리와 성약 124:40).

이 니들포인트는 스티븐 티 베어드가 그린 「나부 성전(연작 1호)」의 해석판이다. 스테펠 자매는 양모와 합성사를 사용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 이 니들포인트의 한땀한땀은 성전 디자인의 각진 부분까지도 세밀히 묘사하고 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니트 스웨터, 1990년,  
 마시린 브라보,  
 로잔느, 스위스.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 하나님이  
 가라사대 ...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창세기 8:1:  
 12~13)



가족은 영원함, 자수, 1990년,  
 로르테스 디 샘슨, 마탄, 필리핀.  
 “예언자 엘리야는 자녀들의 마음에 그들의 아버지께  
 주어진 약속을 심어 주도록 임명된 자였나니, 주님이  
 오셔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되도록 저주로 그 땅을  
 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구속과 자녀들을  
 그들의 부모에게 매이게 하는 인봉을 위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성전에서 행해질 위대한 사업을  
 미리 보여 주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38:47~48).  
 샘슨 자매의 작품은 신권의 인봉의 권세,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권능 및 하나의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 태국의 성도들

데이비드 미첼



“저는 새벽 다섯시에 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이 굉장히 차거웠지만, 저는 따뜻하게 느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큰 카엔 지방부장으로 봉사중인 크리앙크라이 피타크퐁 형제는 약 22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했던 순간을 회고하면서 이 아름다운 나라 태국에서 거의 4천 명의 교회 개종자들이 느꼈던 기쁨과 유사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한다.

중국의 남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및 말레이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태국은 아시아에서는 특이하게 유럽 열강에 의해 식민지가 된 적이 전혀 없는 국가이다. “자유인의 땅”이란 뜻을 지닌 나라 이름에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인 이곳에 첫발을 디딘 말일성도 선교사는 엘람 루딩튼 장로였다. 그는 1854년 4월에 태국의 수도 방콕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해 7월에 그곳을 떠났다.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난 1966년 11월에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선교 사업을 위해 이 땅을 헌납했다. 그 후 태국 정부와 2년에 걸친 협상 끝에 남극동

선교부에서 여섯 명의 선교사가 태국으로 이동되었다. 1969년까지 태국은 새로 조직된 동남 아시아 선교부에 속해 있었으나, 1973년 7월에 태국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현재 이곳에는 90명의 복음 선교사가 있으며 그중 20명은 태국 출신이다.

태국에서는 전도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도자들은 회원들의 소개로 교회에 들어오며, 크리앙크라이 피타크퐁 형제같이 선교사들을 보고 호기심에 교회를 찾는 구도자도 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그들과 연락이 닿자 선교사님들이 진행하는 영어회화 반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그 뒤로 저는 복음을 공부하고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 10월 열아홉 살 때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 축복과 시련

간증을 얻고 침례를 받은 일은 크리앙크라이 피타크퐁의 생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기타 의미있는 일로는 그가 교회로 인도한 목다한과 결혼한 일과 큰 카엔 지방부장으로 부름받은 후 다시 큰 카엔 지방부장으로 부름받았던 일 및 1990년 자신의 가족 및 다른 태국 성도들과 함께 비행기로 필리핀 마닐라 성전

왼쪽:물몬경 선물이 와니파 통차림 자매와 그녀의 자녀들인 아리자(4세) 및 아처눈(3세)을 복음으로 인도하였음.

위:큰 카엔 지부의 회원들은 최근 활동 사교 모임을 가졌음.





콘 카엔 지부장단의 크리앙크라이 피타크퐁 지부장(왼쪽)과 실라파차이 트라쉴 형제가 지부내의 다른 가족에게와 마찬가지로 당차이 사수드 형제(오른쪽)에게 비상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수드 형제는 20년 이상 교회에 다닌 회원으로서 육 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었는데 독거미에게 물려 실명되고 말았다.

에 갔던 일 등을 들 수 있다.

“우리가 마닐라로 간 일은 태국 교회 역사상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참석한 200여 명의 성도들 모두 대단히 감격해 했습니다.”라고 그는 회고한다. “이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계획했던 여행이었어요. 일인당 약 350불이 소요되는 아주 값비싼 여행이었지요. 그곳에 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10살 난 딸 케사린조차도 취사용 석탄을 팔아 얼마 안되는 비용을 마련했을 정도니까요.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피타크퐁 가족은 이같은 축복을 받은 반면 가혹한 시련도 겪었다. 약 7년 전 피타크퐁 부장이 사업차 출장을 갔을 때 한 가택 침입자가 피타크퐁 자매를 흉기로 때리고 그녀가 걸고 있던 금 목걸이를 훔쳐갔다. “제 아들 우티크라이도 어머니를 도와 주러 갔다가 장모님과 마찬가지로 공격을 당했어요. 그 사람은 제 딸이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달아나 버렸죠.”

“아내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으며, 아직까지도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어서 정신을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가운데 위안을 찾는다. 피타크퐁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성전에서 함께 인봉받음으로써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영이 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족들이 각자 간증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섯 살 난 우리 아들은 물론이고 그 밑으로 두 딸들까지도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아홉 개 지부 이천 명의 회원들은 대다수가 빈곤하다고 피타크퐁 부장은 이야기한다. “어떤 가족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한 명뿐인 데, 그것도 정규적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족들은 생계를 꾸려 나갈 만큼 충분한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양친 가운데 한 사람만이 교회 회원인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회원들은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고 활동적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 해도 그들은 걸어서, 혹은 버스나 자전거를 타고 모임에 참석합니다.”

때때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비회원들도 있는데, 복





자매 선교사들이 준비일(피데이)에 우도른 외곽의 황토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피타크퐁 부장은 전한다. “하지만 부모나 가족의 종교적 전통 때문에 교회에 가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전통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참되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피타크퐁 부장은 일상 생활 및 콘 카엔 지방부를 관리하면서 몰몬경을 지침으로 활용하기를 좋아한다. “저는 종종 몰몬경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시킵니다.”

### 복음을 나눌 필요성

몰몬경은 와니파 통차림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수단이 되었다. 한 미군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해 처음 소개받은 적이 있는 그녀는 친구로부터 몰몬경을 한 권 전해 받았다. 이 책으로 인해 복음 선교사들이 그녀를 방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복음을 배우는 것은 제게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한다. “이들에 한번씩 선교사님들이 저를 방문해 주셨으며, 저는 그분들이 말씀하

신 사항을 메모해 두곤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저는 앞서서 배운 공과를 그분들께 다시 물어보곤 했어요. 결국 1976년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차림 자매는 사업상 여행을 많이 해야 하는 비회원 남성과 결혼을 했으나, 결혼 생활 오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에 앞서 통차림 자매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은 한 지방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다. 이혼 후 삼년 만에 그녀는 1981년에 침례를 받은 아난 형제와 재혼한 후, 두 자녀인 아리자(네 살) 및 아차논(세 살)과 더불어 마닐라 성전을 방문했다.

“성전에서 돌아오면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좀더 나눌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열 명의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며, 그 목표는 2년 안에 달성되었습니다.”

세미나리, 주일 학교 및 상호부조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통차림 자매는 자신의 간증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긴다.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그 어느 누구도 제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차림 가족은 현재 우도른 소재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층 집에서 살고 있는데, 통차림 형제는 “언젠가는” 그 집을 완성할 것이다.

### 복음 원리 안에서 얻은 힘

통차림 가족의 저택과는 대조적으로 분툼과 수완 파망 카타 부부 및 그들의 여섯 살 난 수치트라라는 간단한 목조 가옥에서 살고 있다.

파망카타 형제는 폐달이 있는 승객 수송용 삼륜차를 운전하여 버는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현재는 하루에 약 열 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으나,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양쪽 눈에 생긴 백내장 때문에 야간에는 시력이 좋지 못한 상태라서 어렵다. 전에는 안경을 착용했었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훔쳐갔으나 그에게는 새로운 안경을 마련할 여유가 없다.





태국의 최초 형제 개종자인 아난 엘드리지는 자신의 모국에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왔다.

파망카타 자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리와 세탁을 해주거나 코바늘 뜨개질을 해서 팔아 생활비를 보탠다.

파망카타 형제는 젊어서 기독교에 대해 공부했으나, 그에게는 가입할 적절한 교회가 없었다. 결혼한 상태에서 그는 말일성도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그것이 그가 다시 한번 구세주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촉진제가 되었다. 파망카타 자매는 복음 메시지에 감명을 받았지만 침례받기를 주저했다. “하지만 침례도 받기 전에 남편은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가게 수입을 상당히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되었죠. 복음이 남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간증을 키웠으며, 마침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매일 복음 원리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치앙 마이의 우도른으로부터 북서쪽으로 450km 떨어져 있는 잘 다듬어진 광활한 대지 위에 세워져 있는 현

대식 저택에서 근로자들이 분수대를 가설하고 있다. 그 집의 세 자녀들인 아티쿤(13세)과 폰자리(18세) 그리고 나타논(6세)이 분주히 돌아다니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다투차니 림수콘은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 회원이다. 신경과 의사인 남편은 그녀가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림수콘 자매는 가끔 가족의 필요 사항에 맞추느라 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다.

림수콘 자매가 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처녀 시절 방콕의 한 임대 건물에서 우연히 지부 회원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부터였다. 노래 소리가 하도 듣기 좋아서 “그 교회”에 가입해서 다른 회원들과 더불어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그녀는 선교사 복음 토론을 믿었으나 부모님들은 처음에 침례 허락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침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1969년 11월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1970년 1월 그녀는 치앙 마이의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곳 대학에서 간호학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하와이 소재 언어 훈련원으로 가서 4개월간 선교사들에게 태국어를 가르쳤으며, 후에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 방콕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직후 그녀는 미국으로 가서 텍사스주에서 간호 경험을 좀더 쌓을 기회를 얻었다. 그 후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수학 중이던 약혼자와 결혼했다.

그녀의 남편은 학업을 끝낸 다음 치앙 마이로 돌아와 지금까지 줄곧 그곳에서 신경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가족 가운데 저만 말일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표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림수콘 자매는 이야기한다. “저는 복음에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림수콘 자매가 교회에 속한 직후 치앙 마이에 살고 있던 당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장로 가운데 아난 엘드리지가 있었다. 엘드리지 형제는 태국 교회의 역



사와 그 운명을 함께한 산 증인이다.

아난 톱팁타라는 이름으로 출생한 그는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 그가 여덟 살이 되던 해 아난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그에게 삶과 죽음에 관한 의문을 안겨 주었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동시에 학업에도 매진하여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이 되기도 했다.

그는 “열 여섯 살 때 저는 집을 떠나 방콕으로 가서 한 호텔 레스토랑의 사환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그는 미국무성 직원인 루이스 엘드리지의 아들과 사귀게 되었다. 루이스와 그의 아내 준은 말일성도였다. 엘드리지 가족은 태국의 주요 군사 기지에 배속되면서 아난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했다.

“저는 두 명의 말일성도 군인을 만나 함께 복음을 토론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통해 마침내 지금까지 생과 사에 관해 품었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난은 1967년 12월 24일 침례를 받고 태국의 첫번째 형제 개종자가 되었다. 그 이듬해 최초로 여섯 명의 복음 선교사들이 태국으로 파송되었으며, 아난은 줄곧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 태국어를 가르쳐 주고, 그들을 도와 교회의 소책자를 번역하기도 했다.

한편 엘드리지 가족은 아난을 양자로 삼아 미국에 있는 대학에 보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아난 가문의 성을 포기해야 했지만, 명망있는 학교의 교장이었던 아난의 부친은 아들에게 엘드리지 가족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했다.

그러나 아난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30개월간의 선교 사업을 마친 뒤 미국으로 귀환한 아난은 캘리포니아 소재의 한 대학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그는 영국의 개종자이자 브리감 영 대학교 졸업생인 마가렛 브라운을 만나게 되었으며, 둘은 5개월 뒤 로스엔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했다.

“제가 경영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 마가렛과 저는 태국으로 건너가서 제 가족과 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교회를 위해 지역 배부 사무실을 개설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그는 태국어판 물론경 개정 작업 준비를 도왔을 뿐 아니라, 태국어로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를 번역 및 출판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다.

교회 배부 센터에서 5년 동안 일한 뒤 아난과 마가렛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태국에서 시작한 귀금속학 공부를 계속했다. 결국 그는 캔사스주 캔사스시티에서 귀금속점을 열게 되었으며, 후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도 같은 상점을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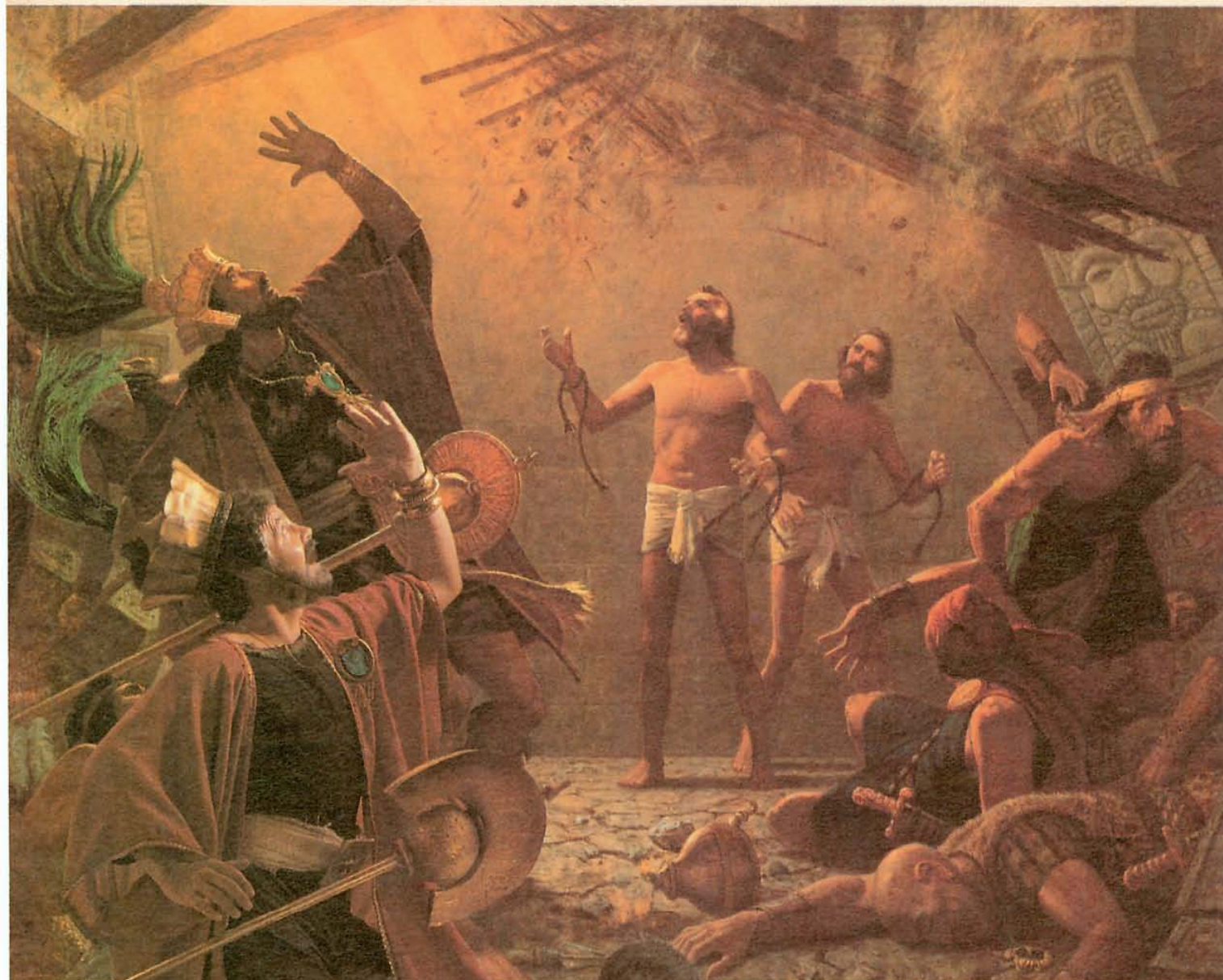
영국 여인과 결혼한 태국인이 어떻게 알래스카에 살기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농담섞인 어투로 이렇게 말한다. “전 그곳에서 낚시하는 일이 즐겁거든요.”

그러나 아난과 마가렛, 그리고 한창 성장기에 있는 세 아들과 두 딸로 구성된 이 가족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1988년 아난은 타이 선교부를 관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1991년 선교부장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그는 미국에서 새로 온 부부 선교사를 맞게 되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루이스와 준 엘드리지였다.)

아난 엘드리지 선교부장의 지도력 하에 태국의 교회 회원 수는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그는 언제나 회원들에게 새로운 구도자와 우정 증진을 하여 그들을 교회에 남아 있게 하여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의 재활동 촉진을 강조해 왔다. 그는 태국에 첫 스테이크가 세워지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1966년 헌납 기도에서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태국을 영원한 평화의 안식처로 성별했다.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은 거센 전쟁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었다. 힝클리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 태국을 헌납하나이다. 아버지시여, 아버지께 간구드리옵나니 성령이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임하시라 수천, 수만의 백성들이 그 메시지에 귀기울이게 하옵소서.” □





유화 감독에 의한 열마와 만물레르. 게리 웹 카프 그림, 윌던 앤더슨 촬영





# 현실처럼 다가왔다



모건 디 웨스터먼

**밤**이었다. 평소 선교사 훈련원에서 들리는 소음도 모두 사라지고 고요해졌다. 나는 몸을 둘둘 감고 있던 담요 속으로 더 깊숙히 파고들며 읽기를 계속했다.

아직도 읽어야 할 분량이 많이 남아 있었다. 목표대로라면 주말까지 책의 나머지 3분의 2를 마저 읽어야 했다. 전에도 이미 몰몬경을 읽지 않았던 바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자진해서 열심히 읽기로 결심한 과제였다. 내 몰몬경은 표시가 잘되어서 읽어 나가는 부분의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그때처럼 잘 와닿는 적은 한번도 없었다. 어찌면 선교사 훈련원장님은 그것을 아시고 훈련원에 있는 3주 동안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라는 과제를 내주셨는지도 모른다.

꽤 오랫동안 읽었다. 그 고요한 밤에 몰몬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수록 이야기들이 더욱 현실처럼 다가왔다. 나는 새로이 발견한 그 몰몬경의 황홀한 마력에 거의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은 이 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마치 몰몬경이 내 귀에 직접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내 귀로 들을 수 있었다. 사실 전에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나는 엘마서를 읽고 있었다. 하나님의 권세로 엘마와 앰올레크가 간혀 있던 감옥의 벽이 무너져 그들이 적의 손에서 구출되는 부분이였다. 그들이 투옥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 나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부 마음이 온유한 백성들은 엘마와 앰올레크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

은 그들이 가르침을 모두 거부하였으며, 적대감을 갖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엘마와 앰올레크를 결박하여 그들이 가르친 바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하였다. 엘마와 앰올레크의 가르침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그 땅에서 쫓겨나고 돌에 맞으며 목욕을 당했다. 그런 후 사악한 자들은 엘마와 앰올레크의 말을 믿은 자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활활 타는 불 속에 던져 넣었다.

책을 읽어 나가는 동안 그 모든 장면들이 눈에 보듯 생생하게 느껴졌다. 사악한 자들이 엘마와 앰올레크를 결박하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게 하는 장면이 보였다. 그 사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 버리려고 의로운 사람들의 경전을 불태워 버렸다. 그런 후 그들은 부끄러움이나 연민의 정도 느끼지 못한 채 울부짖고 있는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붙잡아 한 명씩 뜨겁게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 넣었다.

나는 내 몰몬경을 들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연민의 불꽃이 활활 타고 있었다. 그 회개한 자들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엘마와 앰올레크의 마음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도 책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읽고 있던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마침내는 이해까지 할 수 있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러한 진리를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고 나의 눈은 새롭게 활짝 뜨였으며 눈물이 줄줄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간증을 얻



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에는 믿기만 했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얼굴이 온통 눈물로 흠뻑 젖은 채 나는 물몬경을 덮고 바깥으로 나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다.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따스한 그 무엇인가가 나를 온통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온 심령을 기울여 기도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나에게 물

몬경을 주시고 그 물몬경이 참되다는 강렬하고도 평화로운 간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거침없이 흘러 나왔다.

이제는 젊은 니파이나 연로한 베냐민 왕이나 레이멘인 사무엘이나 위대한 선교사인 엘마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다시금 친근한 느낌이 강하고도 분명하게 느껴진다. 물몬경을 읽을 때면 내 마음이 몇 번이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차며 선교사 훈련원에서의 그 겨울밤을 기억하면 눈물이 흘러내리곤 한다. □

##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대라

더욱 열심히 경전을 공부 하십시오. 이야기들을 읽으며 놀라움과 감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해결책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경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제언을 드립니다.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읽으십시오.** 만일 지금까지 경전을 읽다가 잠들곤 했다면 다른 시간으로 바꾸어 읽으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읽으십시오.**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친구나 남편, 혹은 부모님과 함께 번갈아 가며 소리내어 경전을 읽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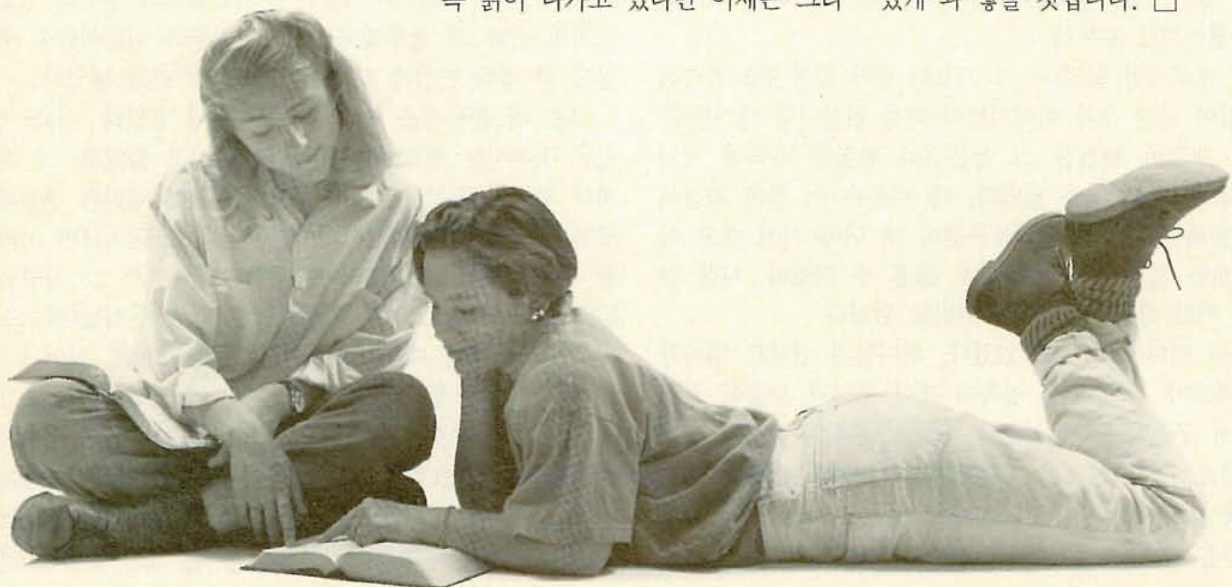
**보충 자료를 활용하십시오.** 교사나 부모님께 부탁하여 경전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책 몇 권을 추천받으십시오.

**언제나 처음부터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전을 읽겠다고 결심을 할 때마다 니파이일서만 계속 읽어 나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리

스도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신 내용이 있는 니파이삼서부터 읽어 보십시오.

**어린이를 위한 경전 이야기 책을 읽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 내용을 축소하지 않고 완전한 여러분의 경전에서 똑같은 내용을 읽으십시오.

**상상력을 이용하십시오.** 경전을 읽어 나가면서 마음속에 경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그려 보십시오. 자신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경전이 더욱 의미 있게 와 닿을 것입니다. □







유산, 유단주 프로보 출신인 진 레이튼 린드버그 클라크 작품.  
이 그림(캔버스 유화, 1990)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색채 및 어두운 부분이 없게 구성된 것은 교회의 기쁜 단위의 가족 내에 총만할 수 있는 진리의 빛을 상징한다.





“멜기세덱이라 칭하는 신권에 성임되어 품위있게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은 얼마나 고결하고 훌륭한  
성품을 갖추고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오직 의의 원리로써만”, 20~23쪽 참조)